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2



VOL. 212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베이워크점 & 치토스점 오픈!!



자카르타의 새로운 명소 베이워크 몰
아름다운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색다른 뚜레쥬르를 즐기세요



TOUS les JOURS Store Location

Mal Senayan City, Lt.5
Tel. 021 7278 1209

Mal Kelapa Gading 1, Lt.1
Tel. 021 452 9539

Mal Emporium Pluit, Lt.4
Tel. 021 6667 6619

Mal Kota Kasablanka, LG-98
Tel. 021 2946 5184

Mal Gandaria City, GF, MG-05
Tel. 021 2900 7794

Plaza Indonesia, Lt.5 E03-E04
Tel. 021 2992 3929

Summarecon Mal Serpong 2, GF-228
Tel. 021 2931 0620

Central Park, Lt.1-117
Tel. 021 2920 0287

Mal Alam Sutera, G-22,22A,23,23A
Tel. 021 3044 8715

Supermall Karawaci, UG-23
Tel. 021 5421 1988

PIM Street Gallery, Lt.1
Tel. 021 2952 9749

Summarecon Mal Bekasi, GF-166
Tel. 021 2957 2491

Margo City, Lt. 1
Tel. 021 2904 9255

Baywalk Mall, GF 03&05
Tel. 021 2962 9502

Cilandak Townsquare, GF 060 & 061
Tel. 021 2904 2814

touslesjoursindonesia

KakaoTalk TOUS les JOURS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205	0705 ^h	매일
	KE626	0750	1655	월,목,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KE625	1925	0035 ^h	수,토,일

- KE625/6편은 4월 2일부터 운행합니다.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행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나라  우리은행

 BANK
SAUDARA

우리은행, Saudara Bank 인수 최종 승인 획득 !

대한민국 금융의 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은행이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의
새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

총자산 15억불, 영업점 120개, 직원 2,000명 규모의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탄생[합병후]



긴급 동포안내문

최근 자카르타를 비롯한 보고르, 땅그랑, 버까시, 수방 등 서부자와는 물론 인도네시아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우리 동포들과 이웃인 인도네시아 주민들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42명이 사망하고, 15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홍수, 하천범람, 산사태, 도로 유실 등으로 공장, 가옥침수와 파손은 물론 통신두절, 식수난과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염병 확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재민과 아픔을 함께하며 빠른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오니 동포와 동포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사랑의 성금 모금함 ◆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Indonesia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USD A/C No. : 100-913-000537 USD A/C No. : 100-913-000538	USD A/C No. : 220 500 7893 RP A/C No. : 220 200 5949	USD A/C No. : 001 00 71 002078 RP A/C No. :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모금기간	2014년 1월 28일 - 2014년 2월 15일 까지		

앞으로 우기동안, 지역적인 취약지구에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상황 발생시 대사관과 한인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담당 : 영사팀 - (021) 2967 2580

한인회 담당 : 사무국 - (021) 521 2515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4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2	한인회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총 금액					\$6,000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자 명단 (접수순)

번호	성 명	납입연도	금 액	
			IDR	USD
1	이 지 현	2014	6,000,000	
2	김 주 철	2014	3,000,000	
3	이 종 후	2014	1,000,000	
4	백 승 래	2014		200
5	손 용	2014	300,000	
6	임 성 용	2014	300,000	
7	이 승 민	2014	300,000	
8	김 재 민	2014	300,000	
9	신 기 업	2014	300,000	
10	강 희 중	2014	300,000	
총 금액			Rp11,800,000	\$200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추가)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INDONESIA	2013	1,000	
2	한인회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한인회에서 알립니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가제) 인도네시아 한인진출 70년사” 발간과 관련하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의 협조 하에, 현재 ‘편찬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직능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열의를 가지고 계신 재 인도네시아 동포 중, 이 역사적인 과업에 동참하실 희망자들을 기다립니다.

-아 래-

분야	내 용	소요인원
집필진	연대별, 단체별, 업종별, 사회분야별	4~5명
편집진	일반편집, 디자인	10여명
자문단	역대 한인회사무국장, 원로 동포	4~5명
감수	감수, 교정 전문가	4~5명

☎연락처

- ▶한인회 사무국장 김재민 0818 870242
- ▶한인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한인회 신임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회 사 명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이 사	김 일 현 	PT. LOCK & LOCK INDONESIA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 례 8

이모저모 한인사회.....10

자카르타 상습 침수지역 지도

홍수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KOFA 회장 이취임식

'2013월드 코리안 대상' 신기업회장 수상

PPP 프로젝트 설명회

우리은행, 사우다라은행 인수합병

대구대학교 한인회 방문

BEAUTIFUL CONCERT

포스코에너지

KOICA-현대차 정비 교육 드림센터

한인문예총 신년간담회

KOICA-해양 환경보호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두번의 새해를 맞고 덕담을 나누고
새로움을 덧입는 2월에 서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월과 2월이 그래왔듯
올해도 비로 인해 기운이 배바지는 걸 느낍니다.

홍수가 주는 체증은 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에도 체증을 줍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변을 잘 살피는 세심함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한-인도네시아 ICT분야 협력	CNN선정 한국의 명소50
JIKS 소식	<편집부>..... 46
JIS 소식	
지역 한인회소식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땅그랑 반튼 한인회	(코코넛나무) <백진협>.....48
-즈빠라 한인회	
-족자 한인회	이끌기와 따르기<편집부>.....50
2014지역별 최저임금	
2014 1월 경제브리핑	행복에세이 <서미숙>.....54
내 마음의 뜰<시:채인숙/그림:이태복>.....35	부동산법<이승민>.....57
풍경과 사람<엄종한>.....37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기업 탐방(PT. Miwon Indonesia)	신성철 칼럼.....62
<편집부>.....38	화 도 소66
Jalan-Jalan Jakarta/독립선언서작성박물관	생활정보
<사공경>.....41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운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상습침수지역

DAERAH RAWAN BANJIR
KONDISI SIAGA 1
BERDASARKAN EARLY WARNING SYSTEM
(SISTEM PERINGATAN DINI)

Nomor Peta: BANJIR-EWS-001
Skala: 1:100.000
Proyeksi: World Mercator
Datum: WGS 84



Legenda

Daerah banjir (berdasarkan batas wilayah RW)



<http://bpbj.jakarta.go.id/wp-content/uploads/2013/12/BANJIR-EWS-003.png>
자카르타 재난대책청 홈페이지

홍수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물류 부문에서만 일 평균 최소 150억 루피아 손실



(자카르타경제일보)

새해들어 자카르타를 비롯한 북부자바와 술라웨시를 강타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3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는 현재까지 자카르타지역에서 우기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액을 2조 루피아(1억 6,400만달러)로 추산했다. 육상교통 운송조합(ORGANDA)는 하루에만 150억 루피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르멜리따 하르또또 선주협회(INSA) 회장은 “악천후로 인해 항구에서 항해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손실액이 수십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랭키 시바라니 APINDO 부회장은 “기상악화와 홍수로 자카르타, 자바섬, 북부자바 해안도로인 뺨뚜라 고속도로가 마비되어 원자재 및 상품들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의 경우 1개월치 재고를 마련해놓지만 식료품의 경우에는 이후 품귀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프랭키 부회장은 또 “홍수로 인한 물류비용 상승이 가장 큰 악재”라며 “정부는 자카르타의 홍수 예방 대책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뺨뚜라 고속도로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물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방의 뺨뚜라, 인드라마유, 찌르본 등 여러 지역이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까 사리 로레나 ORGANDA 회장은 “뺨뚜라 고속도로는 매일 6천대의 버스와 트럭이 지나가는 곳”이라며 “뺨뚜라가 침수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하루 250만 루피아의 추가 운영비용이 매일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 침수된 뺨뚜라를 지나는 차량들의 엔진 고장, 홍수사고 등이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아직 수마트라와 술라웨시의 추가 운영비용은 추산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강한 비바람이 인도네시아 전국을 강타할 것이며 이 같은 기상상황은 내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카르타는 전체의 40%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고 배수 시설이 부족해 침수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홍수로 12명이 숨지고 이재민 수는 6만 2,819명에 달했다.

자카르타우기철 보건주의보 우기철 홍수발생에 따른 주의사항

일단 홍수가 발생하면 우선 물 위생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매우 신경써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A형 간염,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위장염 등의 경구 감염과 결막염 환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홍수철에는 개인 위생상태에 대해 평소보다 더욱 주의해야 하며 손을 철저히 씻고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염된 물이 상처가 난 피부에 닿았을 경우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며 상처부위를 건조시킨 후 청결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물웅덩이에 모기가 쉽게 번식하므로 홍수 기간에는 뎅기열 환자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셔츠, 긴 바지, 양말

등을 착용하고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홍수가 났을 때는 젖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홍수지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피난시 지인들에게 필히 연락처를 남겨두고 피난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과 식수 등을 비축하고 손전등, 휴대전화, 충전기를 항상 준비합니다. 도로 침수로 교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외출시 TV나 라디오를 통해 교통상황을 미리 파악해 홍수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SOS 인터내셔널병원, 재난방지팀 제공)

'제5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및 KOFA 회장 이 취임식

1월 31일(금) 설날에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 협의회(이하 KOFA)는 '제 5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및 KOFA 회장 이 취임식을 개최했다.

땅그랑에 위치한 모던랜드 골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신기엽 한인회장, 한인 사회 단체장, 신발 관련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만기 회장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신만기 대표(파크랜드)가 송창근 회장에 이어 KOFA의 3대 회장으로 지휘봉을 받았다. 1.2대 회장으로 재임했던 송창근 회장(KMK 그룹)은 2013년 12월 30일로 임기를 마치고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으며 전 한인 상공인을 대표한다.

신만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작년은 임금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도산하는 기업 없이 고비를 잘 넘겼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자동화 생산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창조신화의 앞장서서 성공 신화를 이루자”고 덧붙였다.

송창근 회장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며 “신 회장님과 같이 나간다면 한국 신발업계가 시장의 60%를 차지할 수 있다. 회원사들과 함께 성장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엽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는 신 회장님은 열정적인 사람으로 활기찬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파 깃발아래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취임식의 1부 행사가 끝난 후 2부 행사에서는 골프 경기 시상식 및 푸짐한 경품추첨과 Shoepersstar(KOFA 음악 동호회) 라이브 공연, 가수 현숙, 남궁옥분씨의 무대로 흥을 돋우며 따뜻한 구정을 느꼈다.



‘2013 월드코리안 대상’ 리더십분야, 신기엽한인회장 수상



▲ 2013 월드코리안 대상 수상자, 사진 왼쪽부터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 이숙순 북경한국인회장,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김성학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 특별상에 원유철 위원, 서만철 총장, 김명찬 회장

2월12일 서울 국회 본관 귀빈식당서 시상

지난 한해 세계를 빛낸 ‘2013 월드코리안 대상’ 수상자로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 이숙순 북경한국인회장, 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김성학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특별상에 원유철 새누리당 위원, 서만철 공주대 총장, 김명찬 전 버지니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됐다. 본지에서 위촉한 월드코리안 대상 선정위원회는 12월 27일 전 세계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 위의 인사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월드코리안 대상은 본지가 위촉한 월드코리안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엄선해 시상하는 상. 2010년 처음으로 제정돼 올해 제4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5개 분야=올해 한해 동안 세계 한인사회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분야별로 선정했다는 게 선정위원회의 설명이다.

국가브랜드분야=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린다 한 회장은 2012년 11월 워싱턴한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됐다. 57년 연합회 역사상 두번째 여성회장. 그는 올해 한인사회와 현지인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 9월 열린 이 행사에는 5만여명이 찾았다. 그는 올해 지한파 정치인 초청 감사의 밤을 개최하고, 미 현지인을 위한 한글학교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필리핀 이재민 돕기 성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문화소통분야=이숙순 북경한국인회장.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공로가 인정돼 그는 올해 초 북경

한국국제학교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개인 비즈니스로 대일국제종묘유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리더십분야=신기엽 인도네시아한인회장. 신 회장은 선친에 이어 인도네시아한인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1986년부터 한인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인회에서 봉사해 온 것.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한 결과 2009년 우리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 받았다. PT. Hanindo Express Utama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소통하는 한인사회,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올해 한인회를 이끌었다. 커뮤니티분야=김성학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수석부회장. MBC 탤런트로 활동했던 그는 현재 호주에서 에너지 절약 아이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올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그는 국회의장상을 받았다. 해외한인경제인들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나눔봉사분야=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 이 회장은 중동의 카타르를 세계 한인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아프리카·중동한인회연합회 고문으로서 재외국민을위한보호법 입법추진 등을 위해 힘써왔다.

▲선정 경위=본지는 11월8일부터 12월25일까지 월드코리안 대상 후보 추천을 세계 각 한인사회로부터 받았고 국가브랜드, 문화소통, 커뮤니티, 나눔봉사 등 5개 분야로 압축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기획부 및 공공사업부 초청 PPP 프로젝트 설명회



1월 29일, 코트라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기획부와 공공사업부와 함께 상생협력센터(GKBI 빌딩)에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 기획부 및 공공사업부 초청 PPP 프로젝트 설명회’가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희망 금융, 건설 등 관련 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코트라는 한 인도네시아 상생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매월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강연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인도네시아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금년도 첫 번째 행사로 인니 국가개발 기획부(BAPPENAS)와 공공사업부(PU)를 초청하여 정책방향, 프로젝트 소개 및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송유황 무역관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육상 교통에 관해 올해의 첫 행사의 주제로 정했다”며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사업부(PU)의 Deddy 과장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바, 발리, 수마트라, 칼리만탄 그리고 술라웨시를 지나가는 고속도로 공사를 계획 중이며 외국 정부 외 개인투자자들도 참여가능하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약자로, 민간 협력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인프라 사업에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민간 투자자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 이용료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은행, 사우다라은행 인수 합병

우리은행이 1월 28일 사우다라은행 지분인 수대금을 최종적으로 납입완료함으로써 사우다라은행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란 세계화(Globalization)와 현지화(Localization)의 합성어로, 은행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세계화를 하면서도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우리은행 최상학 은행장은 “성공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진을 위해 향후 사우다라은행과 합병 진행시 경영진도 현지인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은행이 사우다라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단

순한 은행간의 합병의 의미를 벗어나, 한국금융의 성공적인 세계화와 현지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성공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우다라은행은 인도네시아 제3의 도시 반둥에 본점을 두고 있고 10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으로 110여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개인고객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1992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우리은행(BWI)이 한국계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개인금융을 주로 하는 사우다라은행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대구대학교 산학연구팀 한인회 방문

대 구대학교 · 한국생산성본부 산학연구진흥팀(팀장 홍순덕)이 1월 13일 한인회를 방문, 인도네시아의 현황과 한인동포의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신기엽한인회회장은 “넓은 지형만큼이나 풍부한 노동자원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기회의 나라이다. 청년의 근면함, 강인한 정신력으로 언어와 문화를 열정적으로 익히고 체험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준비된 모습으로 도전한다면 가능성은 무한하다” 라며 환영하였다.

이어 김문환문예총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잠재력이 무한하고 1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300개의 종족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국가형태의 통합과 조직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은 중국



이나 일본에 비해 이곳에서의 출발이 늦었으나, 지금 5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있다” 고 한인동포의 인도네시아 진출사를 간략하게 짚어주었다.

조규철수석부회장은 “기존의 아이템을 넘어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하여 시도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소왕변호사는 “두려워말고 몸으로 부딪치며 직접적인 반응을 인지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험하며 얻는 값진 결과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며 격려했다.

2030년이 되면 GDP 6위의 성장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학생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걸음 인도네시아와 가까워진 듯했다.



New Year's Beautiful Concert for Love & Peace



재인니 한인음악협회 주최로 1월 19일 (일) 저녁, 우스마르 이스마일 홀(Usmar Ismail Hall)에서 전 세계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외교 자선단체 뷰티풀마인드의 'New Year's Beautiful Concert for Love & Peace' 가 개최됐다.

다양한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 서양악기와 국악기가 함께 어울어지는 퓨전 곡 등 다채로운 연주곡을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한 감동의 무대였다. 연주가 끝날 때마다 400여명의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감동의 무대에 화답했다.

특히 뇌성마비 피아니스트 김경민씨가 피아노를 연주하다 잠시 멈춰서 마비가 오는 손가락을 진정시키고 다시 연주를 시작할 때는 더 큰 박수로 그를 격려했고, 눈시울을 붉히는 관객들도 있었다.

이번 콘서트의 관계자는 “Mata Hati Harapan Bangsa 특수 학교 건립 기금 마련하기 위함이다.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온화한 선율을 전파하고, 즐거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 콘서트를 열게 되었다” 고 말했다.

자카르타 공연 후 동티모르의 수도 딜리에서 21일(화) 저녁, 새해를 여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개최됐다. 특히 동티모르 장애인 밴드와의 협연과



수녀원과 현지 초등학교에서의 '찾아가는 연주'도 진행됐다.

뷰티풀마인드(Beautiful Mind)는 교수 및 전문연주가, 장애인 연주가들로 구성되어 전 세계 38개국 52개 지역에서 90여 차례 콘서트를 개최해왔고 장애, 비장애, 인종과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예술인이 동참하여 공연하고 그 수익금과 후원금은 그 지역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환원하는 사랑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재외한인들의 문화 자선단체이다.

포스코에너지, 찰레곤 부생가스 발전소 준공

포스코에너지(사장 오창관)는 16일 인도네시아 찰레곤에서 사트야 줄파니트라(Satya Zulfanitra) 인도네시아 전력청 부청장,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번째 해외발전소인 200MW급 부생가스발전소의 준공식을 가졌다.

동남아지역에 처음으로 준공된 일관제철소 부생가스발전소는 1, 2호기(각 100MW)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잉여 부생가스를 연료로 하여 시간당 20만k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약 6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기존에 버려지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부생가스 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대기환경 오염도 줄이는 친환경 발전이다.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연간 100만톤에 달한다.

이 사업은 포스코에너지의 인니 부생가스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 전량이 포스코 일관제철소에 공급되는 ‘포스코패밀리 동반진출’ 구조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최고의 공과대학인 반둥공대, 투자조정원이 벤치마킹을 하는 등 발전소에 대한 현지의 관심이 높아 인도네시아와 인근 국가의 추가발주가 기대된다.

포스코에너지는 2011년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인 PT.KS의 발전자회사 KDL(PT. Krakatau Daya Listrik)과 합작법인 KRAKATAU POSCO ENERGY를 설립하고 9월에 부생가스발전소를 착공했으며, 국내 광양과 포항 부생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준공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인도네시아 부생가스발전소 건설 기간 동안 국내 중소기업, 현지 근로자 등 총 50만명(man-day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현지 학교 개, 보수, 거리 청소, 가축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계속해 왔다.

이날 준공식에서 오창관 사장은 “국내 최초?최대의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가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성과”라며 “이번 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동남아 발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해외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에너지는 베트남 팡난주에 1,200MW의 석탄화력발전, 몽골 울란바토르에 450MW의 석탄열병합발전,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섬에 석탄화력발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KOICA-현대차, 정비교육 드림센터 준공



▲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개교 기념 테이프 커팅식. (사진설명: 왼쪽 세번째 부터 익산 현대인도네시아 관계자,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박영식 한국대사관 공사, 김호근 현대자동차 아태지역대표, 무스따파 꺄말 직업훈련센터장, 에보라 미르나 플랜인도네시아지부장, 이상주 플랜코리아 대표)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 23일 북부자카르타에 위치한 직업훈련센터 (Pusatdikjur)에서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KOICA 글로벌 CSR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이 센터는 KOICA가 기업의 CSR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와 함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식 한국대사관 공사,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김호근 현대자동차 아태지역대표와 이상주 플랜코리아 대표와 끄리스티안또 동부자카르타 시장, 무스따파 꺄말 직업훈련센터장과 에보라 미르나 플랜인도네시아 지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업을 위해 2013년도에 총 사업비 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교실 개보수 및 실습실 건축과 기자재 및 실습교구 지원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하였다.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에는 ‘현대-코이카 드림센터’를 활용하여, 약 24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을 시행하여 선진 기술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소액 대출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학생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사업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과정에 선발되는 학생의 약 20%는 여성으로, 자동차 정비 시장에서의 입지가 작았던 여성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OICA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와 KOICA가 향후 이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정비 기술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낮은 취업률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 문예총 신년간담회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영선대사) 은 2014.1.13(목) 대사관 대회의실에서 한인문예총회장단(회장 김문환) 초청 신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시.공연.문예창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인 한인 문화예술단체와 문예총 회장단을 초청하여, 신년 인사와 2014년 활동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문예총 김문환회장, 강희중감사, 이일하 공연담당 부회장, 사공경 기획담당 부회장 겸 문인협회장, 이수진 전시담당 부회장 겸 미술협회장, 유지영 라뮤즈 여성합창단장, 김순재음악협회장, 제종경 서예협회장, 최재원 한바패 고문, 김주현 헤리티지 코리아섹션 회장, 최정순 루시플라워 아카데미 회장이 참석하였다.

김영선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3년 40여 개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한인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성공리에 치뤄졌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14년에도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과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대사관 이천희 서기관과 김석기 문



화원장이 재외예술인 문화행사 지원방안과 2014년 추진중인 주요 문화예술행사 계획을 발표하였고, 문예총 김문환 회장은 10월중 한국문화주간에 맞추어 한인문예총 주최로 각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인도네시아 합동문화예술제 개최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각 단체별 활동현황과 2014년 계획에 대한 소개와 주요 문화행사 개최시 상호협력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문예총은 사생대회, 글짓기, 전시회 등 대사관.문화원 개최행사 공동 추진 등 참여활동을 확대하고, 대사관은 문예총 주최 한국-인도네시아 합동문화예술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KOICA "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 제고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박설계 검토 등을 위한 역량 있는 선박검사관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상운송 분야에서는 최초의 무상개발협력사업인 금번 사업을 통해 130만불을 투입하여 인도네시아의 선박안전 제도 정비를 위한 가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1월 8일 인도네시아 교통부에서 “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 제고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Mr. Bobby Mamahit 해상운송실장, Yan 해사안전국장 등을 비롯 교통부 측 약 20명의 인사와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와 조선 산업 활성화에 따른 선박량의 증가로 해상운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립과 선

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항만에 근무하는 120명의 선박검사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 매뉴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상교통 분야 주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우리의 선박검사 기자재 등을 제공하여 한국의 선박검사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여 향후 해상운송 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동 사업은 국내 해양안전분야 전문기술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2015년까지 시행되며 인도네시아의 선박안전성 제고 및 해양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한-인니 양 국가의 해양협력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배드민턴을 통해 양국간 ICT 분야 협력 다져 찌까랑한 · 인니 ICT 교육센터 마스터플랜도 발표

주인니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1월 21일(화) 찌까랑에 소재한 한-인니 ICT 교육센터(이하 “ICT 센터”)에서 센터 활성화를 위한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 Tifatul Sembiring 정보통신부 장관,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을 비롯한 인니 정보통신부, 대사관, KOICA 등 총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으며, 김영선 대사와 Tifatul 장관과의 배드민턴 및 탁구 공식 대항전에 이어 직원들 간의 친선 경기로 상호 우호와 친분을 다졌다.

동 친선대회가 개최된 ICT 센터는 우리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상으로 지원한 최대 규모(890만불)의 무상협력 사업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체육행사에 앞서 동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KOICA와 인니 정통부는 2011년 5월 ICT 센터 공식 개원 후, 동 센터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하여 꾸준히 논의하여 왔다. 이날 정통부측은 2025년까지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ICT 센터를 전문 자격증 및 학위 발급 가능한 정통부 산하의 정식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인도네시아 최고의 폴리텍 대학교로 전환하여 ICT 인력양성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무상협력 외에도 산학, 민간 협력을 통해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CT 센터는 인도네시아 최대 산업단지인 자바베카공단 내 위치하고 있어 인니 기업체뿐만 아니라 공단 내 한국 업체 고용인력의 ICT 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의 학생 및 취업 준비생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여 직업훈련센터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한국정부(KOICA)는 자문관(2명)과 봉사단원(3명)을 ICT 센터에 파견해 왔으며,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인니공무원 1,500명을 센터에 초청하여 전자정부 인지도 강화 및 IT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선 대사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배드민턴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다지는 매우 뜻 깊은 자리였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찌까랑 ICT 센터가 활성화되고 인니 ICT 역량강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JIKS

자카르타-필리핀 한국국제학교 초등학생 교류 프로그램 실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김승익, 이하 JIKS)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1월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 동안 필리핀 한국국제학교(교장 황순태, 이하 KISP) 학생들과의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지난 여름방학 JIKS 학생들이 필리핀을 방문하며 시작된 KISP와의 교류활동은 이번 겨울에는 발리, 자카르타 및 반둥 등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지역을 여행하며 인도네시아의 문화 및 풍습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JIKS와 KISP의 참가학생 12명은 먼저 발리여행을 한 후 자카르타에서 홈스테이 기회를 가졌다. 발리에서 가장 변화한 꾸따 시내 관광을 시작으로 울루와뚜 사원에서의 계작댄스 관람,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데이 크루즈, 우붓 및 파나룻 해상 사원 등 발리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학생들은 색다른 발리 문화에 흠뻑 빠졌다. 자카르타에서는 JIKS, 따만미니, 모나스 기념탑 및 박물관을, 반둥에서는 화산 및 앙끌롱 공연장을 방문하며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사는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정이 많이 든 학생들은 마지막 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눈물로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하며 실용적인 영어 교육 효과를 높였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인도네시아의 문화에도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1월 30일,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교장 김승익)의 '제 15회 고등과정 졸업식'이 나래홀에서 거행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재학생과 학부모, 축하객들은 102명의 졸업생이 입장하자 힘찬 박수로 그들을 맞아주었다. 이번 졸업생은 94명은 국내 대학에 5명은 외국대학에 진학한다. (미확정 2명, 기타 1명)

김승익 교장은 회고사를 통하여 “하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 것”과 “인간관계 형성은 신뢰이다”며 졸업생들에게 두 가지를 잊지 말기를 당부하였다.

김영선 한국 대사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며, 글로벌한 인재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인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회 신기엽회장은 졸업생들에게 “항상 부모님을 기억하고, 높은 이상을 지닌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를 부탁하였다.

자랑스런 선배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담은 송사와 졸업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긴 답사가 우렁찬 교가 합창에 묻히며 졸업식장은 12년 학교과정을 마치는 아쉬움과 설렘의 문으로 바뀌었다.

대사상: 김유경, 학교장상: 김동재, 재단이사장상: 김소라, 민주평통사무처장상: 박성우, 한인회장상: 옥지민, 동창회장상: 고원복, 시민자원봉사회장상: 추이영 외 공로상 21명, 모범상 8명, 개근상 10명, 정근상 20명

*진학상황 (합격기준, 중복합격 포함)

(2014년 1월 30일 현재)

대학	연세	고려	성균관	서강	한양	이화	중앙	경희	외대	인하	건국	동국	홍익	기타	계
합격자	6	12	21	1	11	14	41	7	15	4	14	1	1	102	250

*졸업생 현황

(2014년 1월 30일 현재)

졸업생수			진학현황				계
남	여	계	국내	외국	미확정	기타	
54	48	102	94	5	2	1	102



J I S

수재민 돕기에 나서...

(학생기자 권기남)



1월 15일 수요일, 자카르타국제학교 (JIS)는 개학을 맞이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마철이 다가왔다. 이번 장마는 자카르타 곳곳에 홍수 피해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JIS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우선 학교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1월 21일 화요일에는 새벽부터 오후 12시까지 지속된 호우 때문에 수업이 도중에 중단되었다. 학교에서는 당일 10시 반 가량에 방과 후 활동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했으며 11시에는 학생들의 하교 시간이 12시라고 알려졌다. 이날 모든 학생들은 제시간에 귀가하였으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교통편의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로 조기 수업 종료를 결정을 지었다.

이번 장마는 학생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폭우가 계속되자 Bogor의 댐이 가득차서 수문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몇몇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물이 차올랐다. 큰 피해를 입은 학생은 없었지만 비 때문에 학교에 지각을 하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많아졌다. 집 앞에 물이 고인 이노영 (11학년) 학생은 물 때문에 차 없이는 이동이 매우 불편해, 빨리 장마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두가지 방식으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다급히 성금을 모으고 그 외에 헌옷, 신발, 수건 등 수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모으고 있다. 이 수재의연금과 구호물품들은 수재민들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봉사단체에게 기증될 예정이다.

또 한편으로는 flood bucket을 나눠주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Flood bucket이란 수재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화, 우비, 손전등, 세면도구 등의 다양한 도구들이 담긴 상자로, 수해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두 달간의 필수품을 제공한 JIS는 매년 학생들의 참여로 직접 이 상자를 준비하고 나눠주며 올해에는 이번 장마철 기간에 총 400개의 상자를 배포한다.

이번 장마의 피해가 모두에게 최소화되길 바라며 JIS는 이번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중이다.

땅그랑 반튼 한인회 2월 소식

진정한 한인 속에서 하나되는 땅그랑 반튼 한인회!!

새해 다짐을 했던 연초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야심차게 세웠던 신년 계획 다시 한번 더 쟁겨보시고 더욱 발전하는 한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지난 1월 15일, 18일 양일간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 회장이신 이선화 선생님께서 65세이상 어르신,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특강을 하였습니다. 외국생활에 지루한 어르신 및 어린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고 현지 대학생들에게는 한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땅그랑 문화원에서는 뜨개질강좌, 회화강좌, 한지공예강좌, 기타강좌, 클래식 강좌의 수강생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한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강좌 개설을 위한 수강생도 모집중입니다.

♣ 2월중 임원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추후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인회 사무실 : 021. 9179. 6313
Hyundai Amartapura A-1H

즈빠라(Jepara) 소식

* 소식 하나

지난 1월 10일(금) 즈빠라에서는 한인2세들의 교육의 장인 한글 놀이방이 문을 열고, 학생들을 맞이했다.

이제 걸음마로 시작하는 한글 놀이방이지만, 다문화 2세들을 위한 기초 한글 교육부터 한글을 더 나아가서는 인성교육 및 고국을 알리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한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시작이 되었으나 즈빠라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한인2세, 인도네시아 아내들은 물론 한글을 배우고자하는 현지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 교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본다.



* 소식 둘

우기철을 맞이하여 이곳 즈빠라는 타지역과 달리 지속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였다.

즈빠라에 상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더불어 사는 현지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즈빠라 한인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수재민의 연금을 모금하게 되었다.

즈빠라 한인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목표금액을 초과하여 즈빠라 Bupati 를 만나 심심한 위로와 격려 및 수재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라면 600 Box 를 기부하였다.

더불어 함께사는 한인들의 위상과 긍지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현지인들과 소통과 대화의 문을 활짝열고, 나눔을 실천하는 한인사회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조영성

족자(Yogyakarta) 소식



2014년 1월 11일 토요일에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시인 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오 세영교수님(시인) 께서 족자카르타(장소: 한식당 대장금)에 오셔서 ‘시와 인생론적 진실’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www.jogjakorean.com

<수카부미지역 주류금지>

2014.1.17부터 수카부미 지역 주류 금지에 대한 『수카부미 지방령 2014년 1호』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인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류 금지란 병원에서의 의학적 처방과 종교행사를 위한 것을 제외한 주류의 생산, 조제, 유통, 판매, 무상배포 및 음주와 주류 소비의 금지를 뜻한다.
- 수카부미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하는 자는 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 5백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카부미에서 음주를 하는 자는 1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단체는 사업허가 취소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2014년도 최저임금 발표 결과

지역간 임금격차 확대 지방으로 눈길 돌리는 기업들

인도네시아 2014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상승률은 평균 17%로, 작년보다 둔화되었고, 지역격차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방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낙후지역도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국 33개주 가운데, 올해 주 최저임금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4개 주(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족자카르타주)를 제외한 29개 주 평균 최저임금은 157만 9,564루피아로 집계됐다. 가장 상승폭이 컸던 주는 발리주로 31% 상승했다. 그 뒤로 깔리만판주가 30%, 이 밖에 20%대가 11개 주, 10% 이하가 16개 주로 나타났다.

임금인상에 주지사 권한 커

전국 임금지표인 자카르타의 2014년도 최저임금은 244만 1,000루피아로, 상승률은 11%였다. 이는 전년도 상승폭인 44%를 크게 밀돌았다. 정부는 임금상승률을 물가상승률 플러스 10%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임금상승률이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 특별주지사의 임금인상 억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지적도 있다. 조꼬 지사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어, 지지도가 매우 높아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부자바주에서도 주지사의 강한 결정권이 임금 정책에 반영됐다.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 수라바야에서도 최저임금상승률은 26~27%로 지난해의 37~38%보다 10%정도 낮아졌다. 동부자바주지사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고 각 지역마다 최저임금제안금액을 낮추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개선에 성공한 동부자바 주지사가 더 이상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취할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중부자바 임금.수도의 절반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지역격차는 커지고 있다. 수라바야와 주변 지역의 임금은 수도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수라바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부 자바주의 6개 군 및 시에서는 수도의 절반 이하인 100만 루피아였다. 중부 자바주에서는 최저임금이 자카르타의 절반인 100만 루피아 대 초반에 머무른 지역도 아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수라바야 등지에서 활동했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중부자바 지역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투자조정청의 한 고문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기적인 개발정책으로, 수도권 외 지방에 투자가 분산되고 있다” 라며 “앞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도 지방도시에 주목하는 경향은 점차 커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이점 살리는 전략 모색해야

전문가들은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속도가 느리지만 노동집약형산업의 경우 투자처로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과제는 낙후된 지방의 공업단지과 항만 등 인프라의 부족이다.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승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투자유치에 적극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 (UMK)

지역	201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자카르타주	Rp 2.441.301	9.00%
반뜰주	Rp 1.325.000	13.25%
리아우제도주	Rp 1.665.000	21.97%
리아우주	Rp 1.700.000	21.43%
북부수마트라주	Rp 1.505.850	10.00%
서부수마트라주	Rp 1.490.000	10.37%
남부수마트라주	Rp 1.825.000	12.00%
방카블리똥주	Rp 1.640.000	29.64%
붕꼴루주	Rp 1.350.000	45.00%
잠비주	Rp 1.502.300	15.56%
중앙팔리만판주	Rp 1.723.970	11.00%
서부팔리만판주	Rp 1.380.000	30.00%
동부팔리만판주	Rp 1.886.315	7.66%
동남부술라웨시주	Rp 1.400.000	24.42%
남부술라웨시주	Rp 1.825.000	12.00%
중앙술라웨시주	Rp 1.250.000	25.63%
북부술라웨시주	Rp 1.900.000	22.58%
파푸아주	Rp 1.900.000	11.11%
서부파푸아주	Rp 1.870.000	8.72%
서부누사똥가라주	Rp 1.210.000	10.00%
남으로 아체 다루살람주(아체주)	Rp 1.750.000	12.90%
말루꾸주	Rp 1.415.000	10.98%
고론탈로주	Rp 1.325.000	12.77%

반둥시	Rp 2.000.000
찌마히시	Rp 1.735.473
반둥군	Rp 1.735.473
서부반둥군	Rp 1.738.476
수므당군	Rp 1.735.473
수방군	Rp 1.577.956
뿌르와까르따군	Rp 2.100.000
까라왕군	Rp 2.447.450
브까시군	Rp 2.447.445
브까시시	Rp 2.441.954
데벙시	Rp 2.397.000
보고르군	Rp 2.242.240
보고르시	Rp 2.352.350

수까부미군	Rp 1.565.922
수까부미시	Rp 1.350.000
찌안주르군	Rp 1.500.000
가룻군	Rp 1.085.000
따식말라야군	Rp 1.279.329
따식말라야시	Rp 1.237.000
찌아미스군	Rp 1.040.928
반자르시	Rp 1.025.000
마잘렝가군	Rp 1.000.000
찌르본군	Rp 1.212.750
찌르본시	Rp 1.226.500
꾸닝안군	Rp 1.002.000
인드라마유군	Rp 1.276.320

출처: 이주노동부



2014년 1월 월간경제브리핑

Bundaran Hotel Indonesia (HI)

대선 후 부동산 꿈틀...

'투자적기는 바로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오히려 기회 : 콜리어스

“대선을 앞둔 바로 이 시점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의 페리 살란또 연구소장은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4년도 부동산 전망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8일자에 따르면 페리 소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선에 앞서 거래를 미룬 채 관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대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부동산 매입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지금이 가격조정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페리 소장은 “대선 이후에는 신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정책에 따라 관망하던 대기 수요자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그때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

전 부문의 부동산 매물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 투자가 주춤하는 이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5~10년 간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임대료 측면에서 2013년도 자카르타 오피스 임대료는 달러화 지불의 경우, 10.1%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도 임대료 상승률인 50%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루피아화 지불 임대료는 30% 상승해 예년과 비슷했다. 루피아화 지불 임대료는 거의 매년 30% 가량 오르고 있다. 한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3년도에 20%이상 올랐으나 올해는 10~20%정도로 전망된다.

2014년도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는 2013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료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차인은 관리비용 등 서비스 차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도 의무가입 올해 외국인근로자2만명 가입 목표

BPJS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실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WNA)들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업종이나 소득에 따라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다루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1월부터 BPJS에 집약하여 오는 2019년까지 전 국민이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서 회사원, 공무원, 군인, 경찰 등 건강보험을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의무화한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가건강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사회보장보험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 밝혔다.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금년 외국인 근로자

(WNA) 중 약 8%를 국가사회보장제도 (SJSN)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취업하는 근로자 전원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고 11일 인베스톨데일리가 보도했다.

BPJS 의료보험부문의 빠미 사장은 “시행 첫해에는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에 근무중인 외국인 약 25만 명 중 2만 명의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 고 밝히고 “인도네시아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 1억 2160만 명의 가입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대체로 기본 월급의 5% 전후로 본인과 고용주가 분담하고 빈곤층의 보험료는 정부가 분담한다. 당분간 보험대상은 진찰, 처방약, 출산, 입원비용 보조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자카르타
경제세일보

Jakarta Biz Daily
Pet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 Jend. Gatot Subroto Mak. 32-34
Jakarta Selatan 12950





5월부터 산업용 전기료 대폭 인상 부문별 38.9%~64.7%까지 올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대대적인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력소비량에 따라 산업용 전기료는 38.9% ~64.7%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2일자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전날 전력 가격이 5월 1일부터 매 2개월마다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I3으로 불리는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보통 200 킬로볼트 암페어(kVa)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며 해당 전기료는 38.9%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3만KVa를 사용하는 산업은 I4로 불리며, 해당 전기료는 64.7% 인상된다.

제로 와적 장관은 이날 “전기료 인상이 5월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연말부터는 더 이상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인상적용일을 5월 1일로 정한 이유는 4월 9일 열리는 총선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통보에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프랭크 시바라니 위원은 “산업용 전력가격인상은 단계적 인상을 떠나 매우 비생산적인 결정이다” 라고 비난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전력보조금으로 할당된 71조 루피아(58억 5천만달러)에 비축된 보조금이 10조 루피아가 총 80조 루피아가 전력보조금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전력보조금 예산 99조 8천억 루피아보다 훨씬 줄었다.

인도네시아 정광 수출관세율 2016년까지 단계인상, 최대 60%

재무부는 지난 13일 2014년도 1월에 제정한 정광 수출관세율을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금속원광수출 금지법 전면 시행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난 8일 수출 광물에 대한 최소 정제 기준을 밝히는 등 수출금지 완화조치를 선포했지만 비용부담으로 정제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의 우려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수출관세율 인상정책을 밝혀 광산업계의 반발이 빚발치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8일자에 따르면 재무부가 밝힌 수출관세율 인상은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구리의 2015년도 수출관세율이 높다. 2014년 현재 구리 수출관세율은 25%이다. 구리 정광

수출관세율은 2015년도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40%로 각각 인상되고 2016년도 말에는 60%까지 오른다.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광은 2014년 현재 20%에서 2015년도 말 40%, 2016년도 말에는 역시 60%까지 인상된다.

이 수출관세율 인상안에 대해 광산업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광산업자들은 매 6개월마다 수출관세율이 인상되는데 비용부담으로 제련시설 건설은 언제하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르요 밤방 솔리스또 상공회의소장은 “정부는 정광 수출관세율 인상폭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은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자카르타 아침 출발 항공편 운항

대한항공이 오는 4월 3일부터 아침에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오후에 인천 도착하는 항공편을 주 3회 추가 운항한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에 따르면, 추가 운항편은 자카르타에서 매주 월/목/일요일 07시50분 출발, 인천공항에 16시55분 도착한다. 또한 인천에서 매주 수/토/일요일 19시 25분 출발, 자카르타에 00시35분 도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 매일 운항하고 있는 저녁 출발 항공편과 함께 주 10회 운항하여 다양한 스케줄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설되는 추가 운항편을 이용하면 미국, 일본, 중국으로 여행할 때 인천공항에서 짧은 시간 내에 연결편 탑승이 가능하다”며 “인천에서 부산이나 대구행 국내선과 추가로 연결되어 더욱 편리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243회 문화탐방

일 시 : 2014년 2월 15일 (토) 8시 한인회(코리아센터)에서 출발
장 소 : 허영 묘지- 직물박물관(바틱실습) - 묘비박물관 외
회 비 : 37만루피아

244회 - 246회 문화탐방

일 시 : 2014년 2월 24일 (월) - 26일 (수)
6시 30분 한인회(코리아센터)에서 출발
장 소 : 짜위데이 - 반둥 / 진행 : 수석팀장 박선이

접 수 : Lovekoin@hotmail.com / ballonjoa@hanmail.net
0815-8479-7879 / 0811-80-7196
한*인니문화연구원이전(Jl. Gatot Subroto Kav. 58 코리아센터404호(대사관 옆))

<인니어 강좌 일정>

	월	화	수	목	금
9:30~10:50 (80분)	인니어 초급 A 인니어 초급 B	인니어 초급 C1	인니어 초급 A 인니어 초급 B	인니어 초급 C1	
11:00~12:20 (80분)	인니어 중급 A 인니어 중급 B	인니어 초급 C2 인니어 초급 D	인니어 중급 A 인니어 중급 B	인니어 초급 C2	인니어 초급 D
인니어 A반(월, 수)선생님: <u>Adam</u> / 인니어로 수업진행/ 3개월(24회) 초급 100만, 중급 120만 루피아 인니어 B반(월, 수)선생님: <u>조은숙</u> / 한국어로 수업진행/ 3개월(24회) 초급 150만, 중급 170만 루피아 인니어 C반(화, 목)선생님: <u>유정은</u> / 한국어로 수업진행/ 3개월(24회) 초급 120만 루피아 인니어 D반(화, 금)선생님: <u>Devi</u> / 한국어로 수업진행/ 3개월(24회) 초급 120만 루피아					

*개강은 2월 10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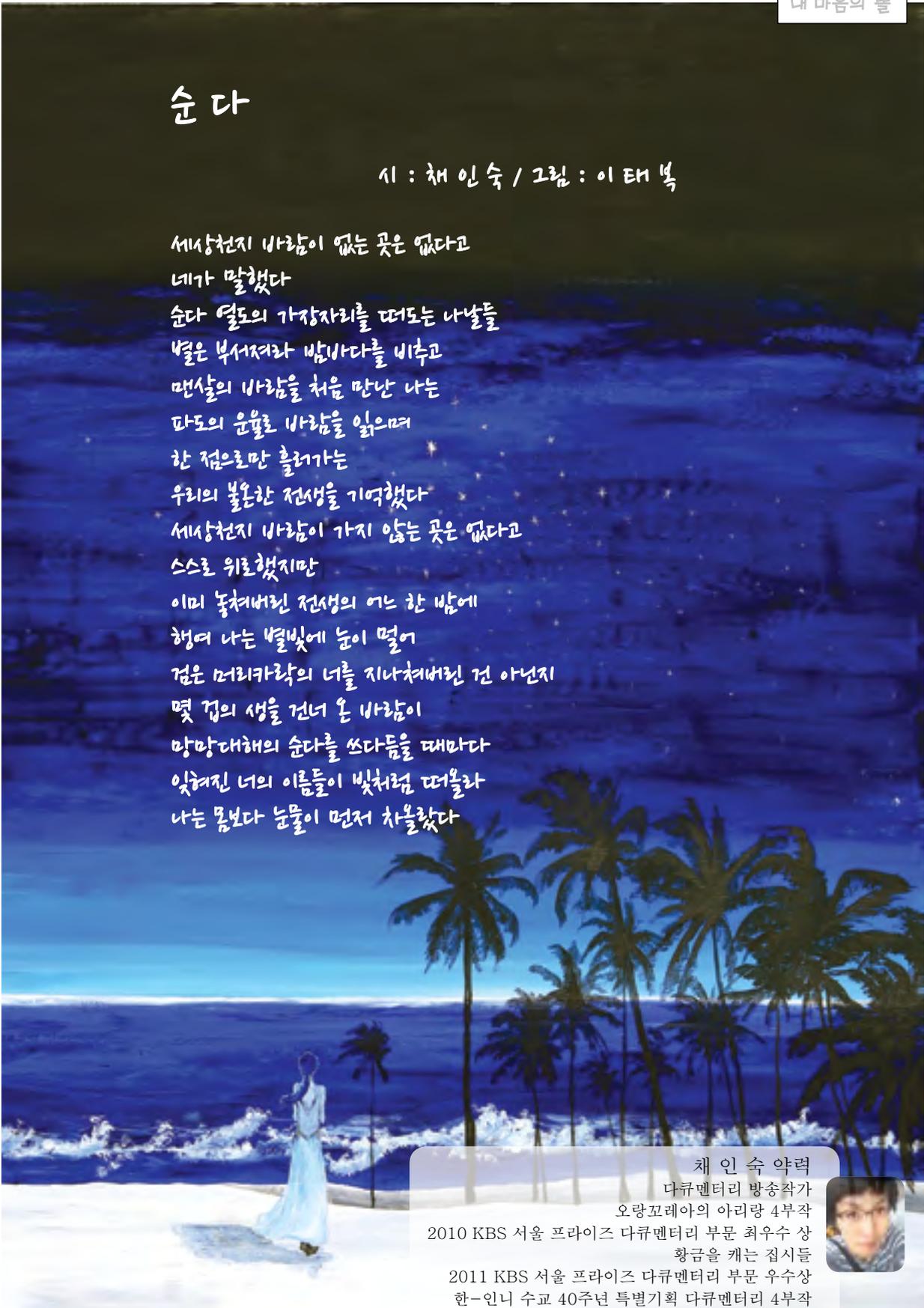
인터넷 접수, 문의: Lovekoin@hotmail.com / ballonjoa@hanmail.net
0815-8479-7879 / 0811-80-7196/ 021) 5273630, 3631

한*인니문화연구원 주소이전 Jl.Gatot Subroto Kav.58 코리아센터 404호(대사관 옆)

순다

시 : 채인숙 / 그림 : 이태복

세상천지 바람이 없는 곳은 없다고
 네가 말했었다
 순다 열도의 가장자리를 떠도는 나발들
 별은 부서져라 밤바다를 비추고
 맨살의 바람을 처음 만난 나는
 파도의 운율로 바람을 읽으며
 한 점으로만 흘러가는
 우리의 불온한 전생을 기억했다
 세상천지 바람이 가지 않는 곳은 없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이미 놓쳐버린 전생의 어느 한 밤에
 행여 나는 별빛에 눈이 멀어
 검은 머리카락의 너를 지나쳐버린 건 아닌지
 몇 겹의 생을 건너 온 바람이
 망망대해의 순다를 쓰다듬을 때마다
 잊혀진 너의 이름들이 빗처럼 퍼올라
 나는 몸보다 눈물이 먼저 차올랐다



채인숙 약력
 다큐멘터리 방송작가
 오랑꼬레아의 아리랑 4부작
 2010 KBS 서울 프라이즈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 상
 황금을 캐는 집시들
 2011 KBS 서울 프라이즈 다큐멘터리 부문 우수상
 한-인니 수교 4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4부작



건강보험(JKN)과 시행기구(BPJS)에 대한 안내

1. BPJS는 BPJS 건강보험(ASKES의 후신)과 BPJS 고용보험(Jamsostek의 후신)의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 BPJS 건강보험은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잠소스텍 건강보험을 이용했던 회사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관되며,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거나 다른 보험을 이용했던 회사 중 대기업 및 중기업은 2017년까지, 소기업은 2018년, 영세기업은 2019년까지 BPJS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
3. 2014년에 시작하는 BPJS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4.5%이며, 4%는 고용주가, 0.5%는 직원이 부담한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월급의 5%로 변경되며, 4%는 고용주가, 1%는 직원이 부담한다. 기준 급여의 최대치는 비과세 소득의 2배이며, 최저치는 각 분야별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2430만 루피아이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2630만 루피아이다.
4. 한 가족당 가입인원은 최대 5명이다.
5. 한 회사 내에 남편과 아내가 고용되어 있는 경우, BPJS에는 한사람 분만 지불한다.
6. 기혼자와 미혼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7. 해고나 사직을 한 직원은 해고나 사직 후 6개월까지 BPJS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8. BPJS와 연계된 은행은 Bank Mandiri, Bank BRI, Bank BNI 이다.
9. BPJS 고용보험은 JKK(상해보험), JKM(사망보험), JHT(노후보험), JP(연금보험)으로 구성된다.
10. 잠소스텍에서 주관하던 JKK, JKM, JHT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BPJS 고용보험이 주관하며, BPJS 고용보험은 2015년 7월 1일에 공식 출범한다.
11. 현재까지 관련 규정이 모두 나온 것이 아니며, BPJS 건강보험 관련 규정은 앞으로 1년, BPJS고용보험 관련 규정은 앞으로 2년 동안 정비할 것이다.

(코참)



<Gonjing>

한국의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비방” 을 먹어보지 않은 한국 사람은 아마 없을 듯 싶습니다
사람 사는것이 별다를것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길거리에서 잔뜩에 팔리는 “Gonjing” 장수의
환한 웃음을 바라보며
나도 한입 먹어 봅니다,, 달달한 맛이 결코 웃음이 베이게 하는군요

-Jakarta 산책중-

PT. MIWON INDONESIA



MIWON INDONESIA
김두련 법인장

미원 인도네시아는 1973년 국내 최초로 플랜트를 수출하여 세운 한국 대상그룹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으로 올해로 **창립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지난 1998년에 폭동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2001년 이후부터는 사업이 안정화 및 정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사업신장과 현금흐름 개선으로 현재는 현지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본사지원 없이 현지 자체조달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다각화된 식품기업이 되겠다’ 는 VISION을 갖고 있습니다.

- 본사와의 분리를 통한 독립법인 과정

1973년 현지법인 설립 이후 사업초기 본사의 인력과 자금지원 하에 대부분의 사업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아지노모토), 중국의(사사)에 이은 조미료업체의 후발 진출업체로서 사업초기 부진한 영업실적과 급증해가는 시장미수(매출채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대투자 실행은 현금흐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여 본사의 자금지원(증자) 없이는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1996년 기업공개(IPO)로 자체적으로 현지에서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수행한 사례도 있었으나, 1997년 IMF 금융위기로 급등한 외화부채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으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MIWON 인도네시아의 의 주요사업으로는

- PT. Miwon Indonesia
조미료 및 시즈닝 제조 및 수출, Flexible Packaging 제조 및 판매
- PT. Jico Agung
현지에서 생산된 당사 제품 및 타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판매법인
- PT. Aneka Boga Nusantara
시즈닝, 차(茶)류, 프리믹스 제조법인
- PT. Miwon Agrokencana Sakti
Agro Business Holding Company
- PT. Sintang Raya : Oil Palm Plantation 및 Crude Palm Oil 제조

인도네시아에 정착하면서 겪은 어려움

조미료 사업에 후발업체로 참여한 사업초기, 경쟁사 및 그들의 후원자의 시기와 방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양이 다른 당사 브랜드에 대하여 그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사유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현지의 사법문화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고 대한민국 한식의 상징적인 신선로를 기반으로 한 미원로고를 사용하지 못함은 물론,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오랜기간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미원만의 무기(예: 주력상품 등)

-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로칼브랜드 Miwon, MamaSuka보유
- 전국적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영업력
20개 영업지점/ 200여개 대리점 조직 보유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CSR활동을 통한 대표적인 사회공헌기업으로서 좋은 이미지
- Flexible Packaging 컵음료(Lid Cup)시장의 차별적인 생산기술을 통한 높은 신장
- 미래 전망이 높은 자원사업(Oil Palm Plantation) 보유



미원의 CSR

Growing together, Together with us 라는 동반상생 슬로건을 기반으로, 40년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이익의 일부분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순이익의 2%이상에 상당하는 CSR 연간예산을 편성하고, 총예산의 70%를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Regular CSR Program 에 할당중입니다. 잔여 30%는 자연재해 및 기타 특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프로그램>



○ **경제자립 사랑의 미원마차**

무직 또는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독립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게 현지 식약청 및 대학과 연계하여 3개월간 식품위생/운영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운송수레와 비품 및 초기 3개월간 필요한 식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상인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기와 식수공급**

인근 지역사회 영세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전기와 식수를 제공합니다.

○ **생필품 무상지급 및 자원봉사**

NGO와 연계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된 물품을 수집하고, 포장하여 영세민들에게 전달(배송서비스)하는 동시에 당사 생필품 제품을 같이 기부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직원 사랑의 헌혈**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주민,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 셔츠를 지급하는 등의 헌혈 홍보를 하는 동시에 매년 4~5회에 걸쳐 현지 적십자와 연계하여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 및 장학사업

인근 지역사회의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과 학용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컴퓨터 등의 용품기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체육 및 건강증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 환경캠페인

지역사회 강 살리기 캠페인 참여, 지역사회 재활용 쓰레기통과 운송수레 기증 매월 무료방역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을 살리고 가꾸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원에게 인도네시아가 갖는 의미

인도네시아는 미원에게 또 다른 꿈이고, 사랑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또 하나의 대상그룹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973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40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제2의 대상그룹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질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대상(주) - CSR

대상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경영을 위해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청정원 임직원 봉사단을 발족했고, 2013년에는 청정원 주부 봉사단을 발족해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원 봉사단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외에도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 사업,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룡영화상 등을 후원하고, 행복한 여성을 위한 희망순가락 프로젝트, 가족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청정숲가족캠프 등을 진행하며, 행복나눔N캠페인과 같은 공익연계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주식회사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 공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나눌수록 맛있는 행복'의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의 반찬나눔



휴가전 헌혈먼저 캠페인

자유의 첫 외침 Museum Perumusan Naskah Proklamasi (독립 선언서 작성 박물관)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자유의 첫 외침을 가졌던 독립 선언서 작성 박물관은 1920년대 유럽의 아르데코(Art Deco) 건축 스타일이다. 이 박물관에 인도네시아 독립 준비와 선언서 작성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에 관한 포스트와 그림, 관련된 인물들의 소장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이 있는 멘렝 지역은 깨끗하고 가로수가 울창하며 독립 전까지는 유럽인 상류층의 거주지였다. 이 지역의 거리는 네덜란드 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혁명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독립선언에 참여했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이 지역에 살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역사적 배경

인도네시아 정치지도자들은 일본이 설치한 통치망을 군도 전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민족주의와 독립 투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했다. 당시 수카르노와 하타는 일본의 정치적 기반 위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년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을 망설이고 있었다. 또한 일본 장성들 가운데도 세계 대전의 정세로 보아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항복했지만 아직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을 점령하고 있었고, 후에 멘렝 31(Menteng 31)



로 유명해진 인도네시아 청년투쟁단체는 수카르노와 하타에게 즉시 독립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마침내 수카르노는 8월 17일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국기인 홍백기(Sang Merah Putih)를 처음으로 게양해 인도네시아 군도에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을 알렸다. 이어 하루 뒤인 18일 수카르노-하타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초대 부통령으로 취임한다. <참고로 1928년 10월 28일에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一國一族一語)를 부르짖은 ‘청년의 맹세’가 인도네시아 독립에 바탕이 되었다.>

박물관 건물의 연혁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은 1945년 8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의 무대로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문이 이 건물에서 작성되고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1920년경에 유럽 건축가의 설계에 따라 대지면적 3,914평방미터, 건평 1,138.10평방미터 규모로 세워졌다.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1931년에는 PT. Asuransi Jiwasraya 보험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었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해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때까지는 영국문화협회 건물로 영국 총영사에 의해 운영되었다. 또 일본 점령 후부터 1945년 9월, 연합군이 상륙할 때까지 일본 육군과 해군 간 연락사무소 소장인 타다시 마에다(Tadashi Maeda) 해군소장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그 후에는 영국군 진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 소유물에 대한 국유화 운동이 시작된 후, 이 건물은 재무부에 양도됐다. 재무부는 이 건물을

Jiwasraya 보험회사에 관리를 위탁했다. 1961년부터 1981년까지는 영국 대사관이 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했으며, 1981년 12월 28일에 문화관광부로 이관했다. 1982년에는 국립도서관 사무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84년 당시 문화교육부 장관이었던 응로호 노또수산또(Nugroho Notosusanto)는 박물관청장에게 이 건물을 살아있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마침내 1992년 11월 24일 문화교육부 장관 령 No. 0476/0/1992에 따라 문화교육부, 문화재관리국 산하 독립선언문 작성 박물관으로 확정되었다.



제실

독립선언문 초안을 처음 준비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일본 해군 소장 마에다(Maeda) 장군은 연륜이 있는 안정된 세대의 인물로 권력의 움직임을 알았다. 1945년 8월 16일 밤 10시에 랭가스덴글록(Rangasdengklok)에서 돌아온 수카르노와 하타, 그리고 아흐맛 수바르조(Ahmad Soebardjo, 초대 외무부 장관)를 이 방에서 맞이한다. 수카르노가 집을 빌려주어 고맙다는 말을 했고 Maeda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립하도록 도와 줄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수카르노와 하타, 수바르조가 원로단체, 수카르니(Sukarni)와 하이룰 살레(Chaerul Saleh), 사유띠 멜릭(Sayuti Melik)은 청년단체의 대표로 참석해서 독립에 대해서 논의했다. 원로들은 독립 준비 위원회(PPKI) 회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청

Proklamasi.

Kami bangsa Indonesia dengan ini menyatakan kemerdekaan Indonesia. Hal² yang menginsani ~~perjuangan~~ ^{perjuangan} has kebacaan, d.l.l., ~~diucapkan~~ ^{diucapkan} dengan tjara saksama dan dalam tempoh yang sesingkat-singkatnja.

Djakarta, 17-8-'05
Wakil² bangsa Indonesia

년들은 PPKI가 일본이 만든 기관이라며 반대했다. 청년들이 수카르노와 하타를 진정·설득시키기 위해 서부 자바의 까라왕 (Karawang)에 있는 령아스맹플록으로 보냈다. 수바르조가 8월 17일 독립선언을 약속함으로써 청년들은 그들을 자카르타로 돌아오게 했다.)

제2실

독립선언문을 공표한 장소이다. 수카르노, 하타 그리고 야흐맛 수바르조는 새벽 3시경에 이방에 들어와 원탁에 둘러앉아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했다. 수카르노가 한 장의 종이에 선언문을 쓰고, 하타와 수바르조는 구두로 의견을 제시했다. 파란 줄이 있는 종이에 몇 번이나 수정하면서 선언서를 완성했다. 이 방에는 이날 수카르노가 직접 쓴 독립문 초안과 함께 세 사람의 청동동상이 전시되어 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현재 사용 중인 10만 루피아 지폐에 인쇄된 초상화의 인물들이기도 하다. 독립 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우리, 인도네시아 국민이 이 선언서로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언한다. 권리 전환에 관한 모든 일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시행한다. 자카르타, 17-8-'05> 독립 선언서를 칠 때 ‘인도네시아 국가 대표들’ 밑에 수카르노와 하타의 이름과 서명이 쓰여 있고, 일자는 17일 8월 05년 (hari 17 boelan 8 tahoen 05)으로 적혀있다. 연도는 일본 황기로 적혀 있다. (45년 아닌 05(2605)년) 이로 미루어 보아 선언서 작성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제3실

독립선언문이 공인된 장소이다. 수카르노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선언문 초안을 읽도록 한 뒤 동의를 구했다. 참석자 26명은 선언서를 천천히 반복해서 읽은 뒤 모두 동의했고, 수카르니 (Sukarni)의 주장대로 수카르노와 하타만 공식 서명날인 했다. 계단 옆에 있는 피아노 위에서 인도네시아 국가 이름으로 선언서를 서명했다.



제4실

수카르노는 참석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사유띠 물릭에게 선언문을 타자로 쳐 줄 것을 요청했다. 물릭은 디아(B. M. Diah)와 함께 계단 밑에 있는 이방에서 서명된 선언문을 타이프로 쳤다. 이 선언문에는 원문과 달라진 3개의 어구를 찾을 수 있다. 즉 Tempoh(시간의 구어)가 Tempo로, Wakil-wakil bangsa Indonesia(인도네시아 국가대표)가 Atas nama bangsa Indonesia(인도네시아 국가의 이름으로)로, 또한 날짜와 달이다. 물릭과 디아의 모습은 실물크기로 제작되어 전시되어 있다. 수카르노와 하타는 제 4실에서 타이핑을 마친 선언문을 제 3실에서 받아 인도네시아 국가의 이름으로 선언문에 서명했다. 우연히도 이 역사적인 사건은 라마단 기간인 1945년 8월 17일 금요일 새벽녘에 진행됐다. 26명의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낭독할 장소로 안전성을 고려해 수카르노 자택(Jl. Pegangsaan Timur No. 56:현 Jl. Proklamasi 57 수카르노-하타 독립선언기념동상)으로 결정한다. 수카르노가 오전 10시에 선언문을 낭독하

겠다고 공식 발표한 후 동이 틀 무렵에 역사적인 모임이 종료됐다. 독립선언문 공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주권과 자유를 가진 단일국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45년 8월 17일 오전 10시 정각에 수카르노와 하타가 인도네



Sukarno



Sudirman

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충심을 다해 선언문을 낭독했다. 독립선언문 낭독을 마친 후 이어진 짧은 연설을 통해 독립을 선포했다. 이어 국가인 인도네시아 라야(Indonesia Raya)가 연주되고 영부인 파트마와티(Fatmawati)가 바느질 한 홍백기(Sang Merah Putih)가 게양되었다. 1시간 동안 이루어진 근엄하고 겸소한 이 의식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독립 후에 그들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층에는 독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의 초상화와 독립선언을 보도한 옛 신문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국이 있고 그걸 지킨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이곳에는 여성 독립투사가 사용했다는 사무라이용 긴 칼과 옷도 전시되어 당시의 열기를 회상할 수 있게 한다.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위해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수단도 함께 사용했는데, 외교 항쟁도 이 건물에서 시작됐다. 즉 1945년 11월 17일에 수판 샤희리르(Sutan Syahrir) 국무총리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반 무크(Dr. H. J. Van Mook)가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단이 연합군의 중재로 이 건물에서 회담을 가졌다. 2차 회담 역시 1946년 10월 7일에, 이 건물에서 영국의 중재로 개최되어 휴전에 관한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대표는 Sutan Syahrir, 네





덜란드 대표는 Prof. Schermerchorn, 한편 중재자로는 Lord Killearn씨가 배석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Cirebon의 Linggajati회담(1946.11월), Renville회담(1948.1.17;전쟁 포로 교환), 원탁회담(1949.8.23)에서도 알 수 있다. 유명한 전투로는 북부 술라웨시에서의 국기 사건(1946.1.10~1946.2.14), Medan 지역에서의 전투(1945.10.13~12.10), Palembang에서의 5일 밤낮전쟁, Semarang에서의 5일 전투, 반둥남부 불바다 사건(1946.3.23~3.24), BojongKokosan, 그리고 Lengkong, Sulawesi에서 일어난 Westerling 사건(1946.12.)이 있다. UN 안전 보장 위원회 구성, 민족 운동가 R.Iwa Kusumasumantri의 일생, 정부에서 Satya Lencana Satya Kelas II 상을 받은 독립 운동가 I Goesti Ketut Poedja의 활약, 민족 운동가이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Saul Samuel Jacop Ratulang의 업적도 전시되어 있다. 혁명 운동가 Sukarni는 그의 이름(Su는 ‘더’를, Karni는 ‘관찰력’을 의미)이 주는 예감처럼 조국의 운명에 관심을 더 가져 Menteng 31의 지도자가 된다.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Ikada 광장에서 독립선언을 축하하는 거대한 집회(1945.9.19)가 열리는 장면에서는 하늘을 밀어 올리는 듯한 함성이 들리는 듯하다. 무엇보다 Kembali Jogja 자료 사진에서 수카르노와 수디르만이 포옹하는 명장면과 수카르노를 맞이하는 민족 영웅 수디르만의 늠름한 모습은 언제나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신록처럼 푸른 손짓으로 남아있다.

박물관 뒤뜰에는 수로로 가장해서 하수구 밑을 파 놓은 땅굴도 있다. 마에다 소장은 위기를 느끼고 유사시 도주하기 위해 이 건물에서 수로 빠띠(Suropati) 공원까지 연결되는 땅굴을 팠다. 직접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니, 3미터 정도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으면 공원과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땅굴의 입구는 1미터도 되지 않아 한 사람이 겨우 들어 갈만한 크기이다.

이 박물관을 나오면서 진정한 혁명가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감성에 의해 인도되어야하고 그 특징이 결여된 진정한 혁명가는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 중 하나도 이것이다. 혁명가는 냉정한 정신과 열정을 조화시킬 줄 알아야한다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수카르노의 실각을 생각해 본다.

JL. Iman Bonjol No.1 Menteng Jakarta
Pusat (021) 3144743
개관시간: 화,목 08:00-16:00/ 금 08:00-11:00, 13:00-16:00/ 토, 일 08:30-17:00

사공경

(0816-190-9976 / (+62 21) 794 1963 /
Email : sagong@hotmail.com)

사단법인 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Yayasan Kebudayaan Harapan Antar Bangsa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주소이전 Jl.Gatot Subroto Kav.58 코리아센터 404호(대사관 옆)

Email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alanjalanindonesia@ymail.com (문화탐방)
lovekoin@hotmail.com

■ ■ CNN이 선정한 한국 꼭 가봐야할 곳 50

41. 남이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긴 하지만 관광객들은 그보다도 메타세콰이아길을 걷거나 드라마 “겨울 소나타” 배용준과 최지우가 거닐었던 장소들을 재현하고 싶어 방문한다. 드라마는 끝난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관광객들과 한국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로 자리잡았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는 1940년대까지만 해도 남이섬은 섬이 아니었다.

청평댐이 지어지면서 비로소 섬의 모습을 갖추었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



42. 순천만

세계에서 가장 큰 만 중 하나인 순천만은 다양한 동식물과 한국에서는 가장 큰 갈대밭을 자랑한다. 순천만 갈대 축제는 매년 10월에 열리지만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 전라남도 순천시 대대동 162-2

43. 인제 빙어축제

인제 빙어 축제는 매년 겨울에 소양강 근처에서 열리며 수많은 가족과 연인들에게 겨울과 눈, 그리고 빙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솔로도 방문할 수 있다!

낚시를 즐기지 않는다면 잡힌 빙어를 먹는 것도 도전해보자. 생각이 바뀔지도?

강원도 인제군 소양호 >>



44. 울산바위

봉우리가 여섯개인 울산바위는 큰 바람이 불면 산이 먼저 울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도 알려져 있다. 울산바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전설은 금강산을 찾아 떠돌아다니다가 설악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 이유야 어찌됐건 꼭 방문해야할 장소라는 것은 매한가지.

강원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국립공원 >>



45. 화성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은 화성을 축조할 때 그 성곽 위에 꾸며졌던 정자와 누각 가운데 하나. 디테일이 정교한 건물로 뛰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보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한국 전통음악과 시 그리고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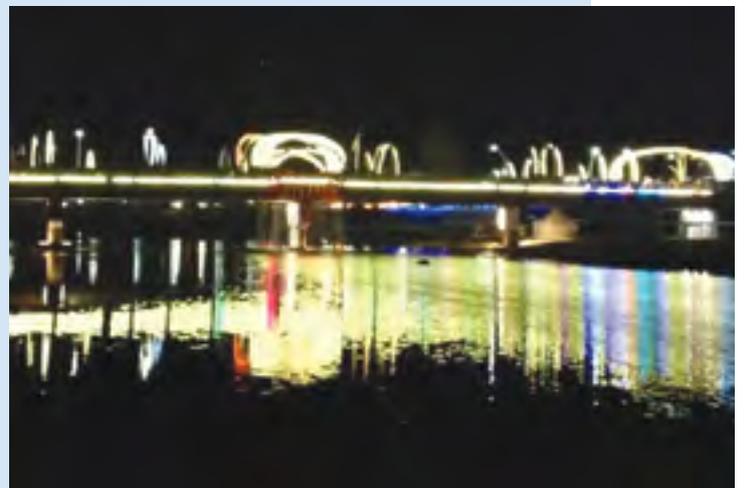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6. 무주 남대천 설다리

설다리는 본래 나무 잔가지 등을 이용해 가교를 놓는 것이다. 이 설다리는 사람들이 남대강을 보다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초 겨울부터 여름까지 사용하다가 장마가 오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다. 이제는 설다리의 전통을 기억하기 위해 이 곳에서는 무주반딧불축제이 열린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





코코넛 나무 II (Coconut palm)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일반명: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Kelapa), 필리핀 (Niyog), 태국 (Ma-phrao on)

과 명: 야자나무과 (Family: Arecaceae)

학 명: *Cocos nucifera* L.

기원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추정

분 포: 전 세계 80여 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가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

이 용: 생과일, 주스, 코코넛 밀크, 코코넛 오일, 화장품 원료 등 무수히 많음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1월호에 이어 계속)

코코넛 나무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변 풍경과 논밭 사이로 즐비한 코코넛 나무의 아늑한 농촌 풍경은 인도네시아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이미지입니다. 코코넛 나무는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는 야자나무 중 하나입니다. 코코넛 나무의 기원지는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혹은 말레이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류를 통해 씨를 분산하는 열매의 특성과 선사시대 이래로 인간의 인위적인 전파로 인해 지금은 전 세계 열대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기원지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외를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의 코코넛이 눈에 띕니다. 높이가 20~30m에 달하고 늘씬해 보이는 키다리 종류

‘Tall variety’와 키가 5~10m로 비교적 작고 아담해 보이는 난쟁이 종류 ‘Dwarf variety’가 있습니다. 종류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키다리 코코넛은 코코넛 미트가 두껍고 딱딱하며 병충해에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난쟁이 코코넛은 빨리 자라며 생산량이 많지만, 병충해에 약하고 코코넛 미트가 연약하여 오일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둘의 단점을 보완한 교배종 ‘Hybrid variety’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교배종은 수확이 빠르고 생산량이 많으며 코코넛 미트가 단단합니다. 또한, 오일 생산량이 많고 질병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위의 사용

인도네시아 전역에 널리 분포하는 코코넛 나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과는 떼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방기구로부터 음식재료까지 그 다양한 활용의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부위별 사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코넛 잎 : 빗자루, 바구니, 부채, 지붕, 제물 및 사원장식
- 코코넛 껍질(Husk) : 야자 껍질섬유(coir)의 주 원료, 매트(발판), 솔, 그물, 밧줄, 연료
- 코코넛 씨껍질(shell) : 그릇, 주방기구, 요리기구 약기, 목공예품
- 코코넛 미트 : 아이스크림, 화장품원료, 코코넛 오일, 코코넛 밀크의 원료(각종 요리 첨가제)
- 코코넛 물 : 음료, 스포츠 드링크, 식초, 알코올성 음료
- 코코넛 줄기(trunk) : 가구, 주택 건축자재, 카누, 드럼
- 코코넛 뿌리(root) : 염색제, 칫솔

코코넛은 또한 인도네시아 중요 수출품목 중의 하나로 필리핀에 이어 전 세계 2위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오일 팜 농장과 더불어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경작지와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수출용 품목은 생과일 외에도 코프라(Copra, 코코넛 미트 말린 것)와 코코넛 오일(coconut oil)입니다.

축복의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성숙한 코코넛 미트에서 추출한 식용 오일입니다. 식품이나 의약, 산업적으로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 속도가 늦고 부패가 더더 장기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압착하거나 용매를 사용해서 추출하는데 추출방식에 따라 Extra Virgin Coconut Oil (야생 코코넛을 수작업으로 압착), Virgin Coconut Oil (재배용 코코넛을 수작업으로 압착), Pure Coconut Oil (말린 코코넛 과육을 가열 압착), RBD Coconut Oil (용매를 사용하여 정제, 표백, 탈취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특유의 향이 나며 섭씨 23℃ 이하에서는 연한 황색의 고체 상태로 있다 23℃ 이상에선 녹아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산업용으로는 비누, 세제, 샴푸, 합성고무,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에 쓰이고 정제한 후에는 마가린, 식

물성 쇼트닝, 식용유, 제빵용 코팅제 등의 식용지방으로 쓰입니다.

요즘은 코코넛 오일의 건강증진 효과가 많이 알려지면서 코코넛 오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개선, 다이어트, 당뇨병, 피부 건강, 항염, 항바이러스 효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이러한 효과는 포화지방산인 라우르산(Lauric acid)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라우르산은 모유의 성분 가운데 포화지방산으로 체내에서 면역력 강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후에 수많은 효능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연계 어디에 라우르산이 많은지 찾게 되었는데 코코넛오일이 유일하게 라우르산을 많이 함유한 오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자연상태에서 압착한 엑스트라 버진급 오일만이 이런 효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코코넛 쪼개기

1. 코코넛을 웬만한 힘으로 내려쳐선 쪼개기 힘들다. 도구가 없다면 바위의 날카로운 끝 부분이나 날카로운 돌을 바닥에 묻고 야자 껍질의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려치면 균열이 생긴다. 균열을 두 손으로 잡아 찢는다.
2. 내려치고 찢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여 코코넛 씨앗(shell)을 획득한다.
3. 코코넛 씨앗을 아랫부분이 손바닥에 오도록 잡고 가운데 부분을 돌려가며 날카로운 돌이나 나무 등으로 내려치면 씨앗이 동그랗게 쪼개져 코코넛 물이 쏟아진다.
4. 또는 코코넛 씨앗 윗부분의 3개의 구멍(coco)은 새순이 나오는 부위로 그중 하나는 물렁물렁하다.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빨대를 꽂아 코코넛 물을 마신다.





'카리스마'로부터 '정직함'으로 이끌기와 따르기

지구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군집 즉, 사회를 이루면 이내 이끄는 존재와 따르는 존재로 나뉘진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심지어 개미들조차도 몇 마리만 모이면 이윽고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나눠 가진다고 한다.1) 즉, 어딘가로 이끄는 개미와 이를 따르는 다른 개미들로 나뉘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아니, 사실 인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인간보다 더 열등하거나 단순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생명체에서조차도 그 현상이 점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지구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군집 즉, 사회를 이루면 이내 이끄는 존재와 따르는 존재로 나뉘진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모여도 '어디로 가자' 혹은 '무엇을 먹자'에 관한 의견이나 결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사람과, 그 의견을 듣고 평가하며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마디로 군집이 가능한 대부분 생명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인 듯하다.

그런데 인간은 주로 이끄는 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끌까에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측면이다. 그리고 이 말은 정말 많은 곳에서 강연되고 또 읽히는 소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우리는 이끌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주로 심취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따르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했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끌기와 따르기를 마치 우열 혹은 상하의 관계로 인식하면서 이끄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끄는 자가 더 우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지니게 됐다는 의미이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더 많은 다수가 어떻게 따르느냐가 더 중요하며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 팔로워십에 관한 강조로 이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구분하여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끌기와 따르기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함께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학문적으로도 '거래형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리

더라면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정도의 관점으로만 이끌기와 따르기 간의 관계를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협소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측면마저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카리스마의 강박? 카리스마라는 결과에 대한 이름표일 뿐!

거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카리스마 있다’ 라고 말할 때도 종종 있다. 하지만 거칠다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실 결과에 가깝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리더가 팔로워들을 무리 없이 잘 이끌고 가면 사람들이 그 결과를 놓고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카리스마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파워로서의 측면만을 떠올린다. 그 여파로 많은 리더들 자신조차 “be charismatic(카리스마를 가지자)” 라는 일종의 강박마저도 가지는 듯하다. 그래서 거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카리스마 있다’ 라고 말할 때도 종종 있다. 하지만 거칠다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카리스마란 사실 gift(신이 인간에게 준 재능)라

는 뜻이며 따라서 특별한 재능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통칭한다.2) 사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거나 심복하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 을 뜻한다. 게다가 학문적으로는 훨씬 더 넓은 의미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 능력과 자질을 ‘거친 물리적 힘’ 이라고만 생각한다.

책으로 배우는 과편화된 행동강령들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시점에서 따라해 보려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더 큰 혼란감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라고 하면 이른바 야성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우리 스스로도 카리스마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과격하고 다소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침묵 혹은 거친 언행을 해보았던 부끄러운 기억을 한 두 개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그야말로 협소하게만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는 가만 되돌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어머니, 선배, 혹은 직장 상사 중 그런 협소한 의미의 카리스마가 있기에 우리가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에서 이끄는 사람의 역량과 자질에 관하여 논하고 ‘이렇게 하라’ 혹은 ‘이런 리더가 되라’ 고 조언한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옳은 말들이

다. 하지만 이러한 과편화된 행동강령들은 현실 세계의 상황과 시점에서 따라해 보려면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더 큰 혼란감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본질인가? 이는 굳이 리더십이나 인간관계라는 특정한 측면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성격의 본성 자체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더 좋은 이해가 가능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정직함이다.





이끌기와 따르기의 본질 ‘정직함’

심리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인간관계의 본질은 서로에 대한 정직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인 듯하다. 이른바 ‘정직하면 손해 본다’ 라는 오해들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은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소이며 더 나아가 본질적 역량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은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소이며 더 나아가 본질적 역량이다.

그런데도 왜 ‘정직=손해’ 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른바 생각의 오류 자체에 기인한다. 이른바 기억의 편향인 것이다.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별다른 손해 없이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 별 신경을 쓰지 않으며 기억에도 담지 않는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를 두고두고 기억에 담는다. 그리고는 정직의 무능함에 관한 자기충족적 예언을 지속해 나간다. 이러한 판단의 오류는 사실 정직 이외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관찰 가능하다. ‘그거 봐’ 라든가 ‘그럴 줄 알았다’ 는 탄식 뒤에 숨은 생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다.3)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두 번째의 이유이다. 이른바 정직함의 정도가 다른 성격 혹은 능력과 만날 때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는 열심히 살피면서도 의식상에는 떠올려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켈러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를 비롯한 이 분야의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으며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4) 정직함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상식적인 대답은 ‘

거짓말을 하지 않음’ 이다. 하지만 이는 정직(正直)에 관한 매우 협소한 의미이며 심지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 마치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물론 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하나조차 제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마저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직함의 충분조건을 지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직함이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1. 타인을 조종하지 않고 가식적인 것을 싫어한다.
2. 공정하고 준법적이며, 부와 사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청렴하다.
3. 자신이 특별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약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하대를 하지 않는다. 이에 기초하면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에 관해서도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1. 목적을 위해 사람을 사귀며 필요 시에는 아부하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규정과 규칙의 위반을 마다하지 않으며 부와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3.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의 갑작스런 단절도 마다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위에 군림하려 하며 특권의식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른 성격이나 능력 요인이 좋다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낮은 정직성과 다른 요인들이 만날 때 대부분 아주 좋지 못한 유형의 사람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정직함이 낮은 사람들이

- * 원만성이 높으면 아첨꾼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낮으면 이기적인 싸움닭의 모습을 보인다.
- * 외향적이면 자아도취적인 사람이며, 반대로 내성적이면 거만한 고집쟁이일 가능성이 크다.
- * 성실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음모에 가득 찬 야심가가 되며, 반대로 나태하면 그야말로 최악의 불평불만자이다.

위의 몇 가지만 보아도 정직함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외의 어떤 능력이나 성격이 결합돼도 결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직함 자체를 눈여겨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부정적 모습을 통해서 내 관계의 네트워크 상에서 제거하거나 멀어지게 만들려 한다. 간단히 말해 만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끌거나 따르지도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우리는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고 또 의식하지 않아도 결국 정직함이라는 것을 기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며 또 따른다. 이끈다는 것은 정직함에 기초한 설득 하기와 따르다는 것은 그 정직함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정직을 아예 가장 먼저 본다. 부정직과 다른 요인들이 결합되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다 경험되고 난 뒤에야 후회하거나 당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몇 가지의 알파한 인간관계 기술이나 테크닉 혹은 카리스마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정직함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우리의 자식, 후배,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쳐 주고 스스로 기를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만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늘 ‘이 세상은 정글이다’ 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분명 힘과 기술과 같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정직함마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글에서의 생존만을 지나치게 고민하면 정직을 가장 먼저 희생시키게 되고 결국 인생의 끝까지 같이 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들로 부터 능력의 용도가 다했을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목격한다. 우리 자신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쉽게 버려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랜 세월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공존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열쇠는 바로 ‘정직’에 있다.

글:김경일(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영화속의 오침,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서미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겨울방학중이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아들과 천만관객을 돌파했다는 영화 ‘변호인’을 보러갔다. 국민배우로 호칭 받는 송강호가 출연하기도 하지만 웬지 모를 끌림이 있던 영화였기에 꼭 아들하고 보고 싶었다. 상업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영화 ‘변호인’은 천만관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우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대박을 거두었다. 아마도 영화의 줄거리 바탕에 기본적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일지 모른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이 한몫 했던 것 같다.

영화 ‘변호인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배경인 부산에서 가난으로 고교만을 졸업하고 끈기와 노력 하나로 사법고시를 통과한 평범한 변호사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오직 돈벌이에만 전념하던 변호사가 어느 사건을 계기로 인권 변호사로 변모하는 과정을 그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시절,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같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는 제작초기부터 마스크의 관심이 쏠렸고 출연배우에 대한 호기심도 대단했다. 역시 배우 송강호였어! 라고 할 만큼 이 영화를 연기하는 송강호 덕분에 ‘변호인’을 이해하는 몰입도가 높았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를 보고나면, 보통 아! 재미있게 잘 봤네, 하는 정도인데 ‘변호인’은 누군지 모를 대상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가슴이 울컥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시대의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 아들과 함께 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시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력자들의 불온세력이 적지 않았다. 그 시대를 살아온 나로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아를 찾게 해준 것 같아 고마운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 이 영화 속에는 공권력이라는 명분아래 특히 젊은 대학생들을 독재로 억압했던 1980년대의 봄을 연상하게 했다. 영화 '변호인'은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치열함도 있었지만 정작 관람객을 울컥하게 했던 것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때로는 격렬한 분노로 세상을 향해 외치던 명대사였는지도 모른다.

천만관객의 가슴을 울렸던 명대사는 국밥집 대학생의 재판장에서 검찰과 경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사실처럼 굳어질 때 울분으로 포효하듯 토해내는 송강호(송우석변호사)의 외침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라는 이 처절한 명대사가 아마도 이영화의 백미가 아닌 듯싶다.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단지 시험문제를 위한 목적으로 수없이 되새기고 외웠던,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 라는 구절이 왜 그 순간에는 가슴이 먹먹하도록 슬프게 와 닿았는지 모르겠다. 감정

에 복받쳐 눈물을 쏟아내는 관객들도 많았다.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당연한 권리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 되살아났던 까닭일까? 어쩌면 평온하기도 하고 무미건조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를 살면서 무심코 잊고 있었던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되찾아 본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권력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있었던가? 한편의 영화를 통해 그런 기회를 접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들과 함께 본 영화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그 포만감에 마음속으로 콧노래마저 나왔다.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요즘 젊은 대학생인 10~20대 들은 늘 피곤하고 지쳐 보인다. 세상에서 원하는 스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하고 갖춰야 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 같은 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보다 희망이 덜 보이는 시기였지만 그때의 우리에게는 목표를 향해서 고뇌하고 발전해보려는 의지가 강했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참으로 행복하고 평온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나 이런 삶도 있었다는 사실을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한참을 말이 없이 침묵해서 영화를 보던 아들은 영화가 끝나자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시대는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네요. 영화 변호인을 보니 조금은 실감이 나고, 그 시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 정말로 그럴 것이다. 삶에 대한 성찰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요즘 세대들에겐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 영화는 대변해 주고 있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의 성찰과 그 시대를 살아온 인물에 대한 진실한 이해였다. 모티브가 된 노무현 대통령만 봐도 여러 가지 모습이 회자된다. 돈을 버는 ‘변호인’이었을 때는 허세도 부렸고 데모하는 학생들한테는 공부하기 싫어서 저런다고 말했었고 또, 어떤 부조리를 봐도 뒤도 안돌아보고 달려가는 우직한 면도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시대에 대한 이해와 실존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것 같다.

어쩌면 영화 ‘변호인’은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 시대를 통해 요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삶에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한 것 일거다.

‘반드시’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쁜 삶속에서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 시간이 곧 “치유이고 힐링 이라고 이 영화는 관객들을 설득하는 것만 같다. 영화가 관객을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힐링하는 방법론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찰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영화의 줄거리를 정의하고 싶어진다.

오해와 편견이 많은 세상인데 소재를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했기에 이 영화에 대한 오해도 많았다고 한다. 그 만큼 고노무현 대통령은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인물로 각인되는 까닭이다.

대학가에 위치한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겨울방학 중인 대학가 거리 곳곳에는 억압의 시대를 겪어온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한가로움과 평온함이 깃들여져 있었다.

아들과 귀한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니 영화 ‘변호인’을 본 나의 소감도 이런 좋은 영화를 만나게 되어서 무척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가 어느 위치에서든 권력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사람들보다 정작 권력의 주인인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라는 영화 속의 외침처럼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던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인도네시아 부동산법(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값이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 지역은 부동산 값이 폭등했으며, 금년 7월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값이 다시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인해, 부동산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한인동포들은 투자 목적으로 좋은 부동산을 찾고 있으며, 아직 임대 아파트나 임대 가옥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들은 거주 목적으로 적당한 부동산 매입을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임대 부동산에 거주하는 한인동포가 자가 소유 부동산에 살고 있는 한인동포의 수가 훨씬 많은 실정이나 부동산 소유 한인동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법은 법규상으로는 외국인(*개인 및 외국 법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권리 부여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여년 넘게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1996년에 외국인에게 부동산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가옥 혹은 아파트 보유에 관한 정부령 1996년 제 41호와 외국인의 가옥 혹은 아파트 보유에 관한 시행규칙 1996년 토지청장/토지담당 국무장관령 제7호를 발효시켰으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을, 인도네시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한부거부허가서(KITAS) 보유자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 제한하며, KITAS 혹은 KITAP 보유 외국인이 신청할 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용권(Hak Pakai)으로 제한하며, 일반 주택 지역에 대한 사용권 신청을 불허하며, 개발업체가 개발한 주택단지로 제한하며,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경우에는 KITAS 혹은 KITAP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가옥 혹은 아파트 보유에 관한 정부령 1996년 제41호와 외국인의 가옥 혹은 아파트소유에 관한 시행규칙 1996년 토지청장/토지담당 국무장관령 제7호는 유명무실한 법규가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의 비쳐진 정부의 입장은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anl)은 토지기본법에 외국인에게 사용권을 허용하고 있으니, 그 수준이면 외국인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무리한 수준이 아니며, 국민들의 주택을 관할하는 주택부(Kementerian Perumahan)에서는 외국인에게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하여 건축권 혹은 소유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나, 토지에 대한 기본법 개정없이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권 혹은 건축권 부여는 가능하지 않는 현실이다. 수년 전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혹은 건축권을 부여하자는 여론이 있을 때, Depok에 있는 인도네시아대학교 법과대학 강당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하여 사회 여러 계층의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의견들을 들은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직접 들은 바로는 의견을 발표한 모든 사람이, i).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혹은 건축권을 부여하면, 내국인에 비해서 경제력이 강한 외국인이 부동산 분야에 투자 혹은 투기를 하게 될 것임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어 내국인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ii). 현재도 외국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니,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은 외국인은 사용권 부동산을 매입하면 되는데 외국인에게 굳이 건축권이나 소유권을 줄 필요가 없다. iii). 외국인에게 소유권 혹은 건축권을 부여하면 개발업체만 배부르게 해주는 결과로 경제집중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 는 의견으로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혹은 건축권 부여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들었다. 인도네시아의 피식민 역사와 사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외국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혹은 건축권 인정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도네시아 부동산 제도를 설명한다.

1. 법적인 신분 기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의 구분

1.1. 자연인

- 방문비자로 입국자
- 기한부거주허가증(KITAS) 보유자
- 거주허가증(KITAP) 보유자
-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 현지법인.외국법인.재단법인.

- 외자투자(PMA) 회사
- 내자투자(PMDN) 회사
- 일반투자(Non Fasilitas) 회사
-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 재단법인(종교단체, 학교, 학원, 사회단체)
- 정부대표 기관(대사관, 정부차원 협력기관)

2.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 신청 가능자

KITAS 보유자, KITAP 유자,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PMA 회사, PMDN 회사, Non Fasilitas 회사, Representative Office, 재단, 정부대표 기관

3.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

3.1. KITAS 혹은 KITAP 보유자

- 사용권(Hak Pakai) 만 허용되고 있다.
- 빈 땅에 대한 사용권 부여는 불허한다.
- 가옥 1동 혹은 아파트 1채만 허용한다.
-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 정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하시라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 매년 재산세(PBB)를 납부해야 한다.
- KITAS 혹은 KITAP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불이행 시에는 국가소유로 귀속된다.
- 양도 시 부동산 양도세 5%를 납부해야 한다(매도자 부담).
- 매입 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매입자 부담).

3.2. 인도네시아국적 보유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받을 수 있으나 세대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면적과 필지 수량 규제를 받는다.

4. 현지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

4.1. 업무용 부동산 만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임직원 숙소용도 및 사무실용도 부동산 보유도 허용한다.

4.2. 투자승인서에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이 명시되며, 명시된 면적에 한해서 권리를 허용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 10% 초과 는 허용하고 있다.

4.3. 부동산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건축권 (HGB), 사업권/경작권(HGU) 혹은 사용권(Hak Pakai)을 허용한다.

4.4. 정부의 허가없이 회사의 임의로 하시라도 매각이 가능하다.

4.5.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5. 외국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

5.1. 사용권 만 허용한다.

5.2. 사용권 매각 혹은 양도는 자유이며

5.3.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6. 재단법인(Yayasan)이 보유할 수 있는 부동산 권리

6.1. 재단의 설립목적은 비영리 사회공익 기능에 한하며, 재단의 활동분야에 따라서 관할부처에 등록 후 현지 법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재단법인은 활동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정부의 관할 부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6.2. 재단법인은 부동산 보유 목적에 따라 건축권 혹은 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다.

6.3.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부동산 매입 시 유의해야할 사항 : 부동산 자체 및 인허가, 매도자의 자격, 부동산 권리

7.1. 부동산 자체 및 인허가

- 등기권리증서 상의 위치 및 사이즈와 실제 상황
- 지목, 도시 계획 및 건축허가서
- 도시계획안 확정이후에 발급된 등기에는 도시 계획선이 등기에 표 시되어 있다.

7.2. 매도자의 자격

- 등기권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명의와 매도자의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토지 권리 등기 증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명의와 매도자 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왜 상이한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매도자가 기혼자이면 배우자의 매각 동의가 필요하다. 재산 분리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부의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임으로 부동산 매도자의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매도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 정관 및 변경된 정관 전체를 체크해서 정관 상의 적법한 자가 매도증서에 서명하는지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7.3. 부동산 권리 등기증서

- 부동산 권리 등기 증서(Sertifikat Hak atas Tanah)

- 권리 등기증서 원본을 시/군 토지사무소에 제출해서 진위와 담보권 설정 유무를 확인 한다. 꼭 확인이 필요하다.

- 경작권, 건축권 혹은 사용권은 권리 기한이 있으므로 잔존 기간을 확인한다.

- 재산세 (PBB) 납부 고지서 (SPTPBB) 및 납부 영수증 (STTSPBB)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더 중요하다. 재산세는 대물세이므로 등기 상의 명의와 재산세 납부 고지서 상의 명의가 다를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왜 상이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호에 계속)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사랑은 노래를 타고 Melodi cinta

허영순/OKTN (KBS WORLD)

Jadi ada masalah besar di firmanya dan pamanmu sangat geram.

로펌에 큰 문제가 생겼어. 너희 삼촌은 화가 많이 나셨고.

Marah/ Gusar / Menyayati hati / Murka/ Gemas/ Jengkel/ Kesal 등이 유사하지만 문장에 따라 “화난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노엽다. 유감이다” 와 같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1) Gusar

Gu.sar = 언짢은(내키기 않는) 화가나는 (sangat tidak senang/ marah)

- Dia gusar dengan pengendara motor yang suka mendahului mobilnya dari sisi yang salah. 갑자기 방향을 바꿔 차를 앞질러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면 화가(언짢다) 난다

- Semua orang gusar tentang kenaikan harga sembako tahun ini.

올해 생필품 가격인상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언짢다..

Tip) 이외에도 언짢다. 또는 유감이다 라는 외마디 표현으로는 Tersinggung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혼이 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언짢아. 기분이 우울해, 유감이야 라는 표현을 원하신다면

Aku tersinggung dengan ucapannya dia kasar. 그의 거친말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

또는 친구가 언짢은 일이 있을 때

Tidak perlu tersinggung / Jangan tersinggung. 언짢아 할 필요 없어. 언짢아 하지마.

2) Marah

Ma.rah = 화가나는, 격노한 (sangat tidak senang, berang, gusar)

하늘에 구멍이 열린 것 처럼 비가 내리는 요즘...

아침 출퇴근 길 많이 답답하고 짜증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흔히 화난다... 짜증난다 하면 Marah나 Jengkel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화난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노엽다. 유감이다. 라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님이 봅니다.

박 판사는 아들인 현우가 2대째 내려오는 법조인의 길을 걷기 원했지만
아들이 어렵게 취직할 로펌에서 소송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가 트사하게 됩니다.

- Wanita yang akan/sedang menstruasi biasanya sensitif dan mudah marah.
월경중인 여성은 민감하고 쉽게 노한다. (화를 낸다)
- Dia marah besar saat tahu pacarnya berselingkuh dengan sahabatnya.
절친과 애인이 바람핀걸 안 그는 굉장히 화가 났다.

3) Gemas

Ge.mas = 매우 짜증이 치미는, (어떠한 행동에) 아주 기분 나쁜, 너무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는 (sangat jengkel(marah) dalam hati, sangat suka(cinta) bercampur jengkel.)
- Aku gemas melihat tingkahnya yang seperti anak kecil.
그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난다.
- Banyak orang gemas ingin mencubit pipi anak kecil yang manis itu.
귀여운 아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볼을 꼬집고 싶어한다.

** Manis : 음식의 단 맛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어떠한 모습이 예쁘거나 행동의 예쁨, 성격이 좋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함.
Roti ini manis (맛) 빵이 달다
Anak ini manis (생김새) 그 아이는 예쁘다
Wanita itu sifatnya sangat manis (성격)
그 성격은 성격이 매우 좋다.

4) Jengkel

Jeng.kel = (어떠한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열 받는, 감정이 상하는 kesal(tentang perasaan)
- Saya merasa jengkel karena anak-anak tidak membaca materi yang saya berikan untuk ulangan hari ini.
나누어준 복습 과제를 읽어오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열 받는다
- Dia sering membuat ibunya jengkel dan darah tinggi.
그는 종종 엄마의 혈압을 높이고 화가 나게 한다 (열 받게 한다)

5) Kesal

Ke.sal = 유감인, 속상한, 언짢은, 짜증이 나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생기게 할 때 표현된다.
(sebal, kecewa(menyesal) bercampur jeng-kel, tidak suka lagi)
- Gadis itu dibuat kesal oleh pacarnya yang sering terlambat datang saat janji kencan.
데이트 약속에 종종 늦는 남자 친구 때문에 소녀는 속이 상한다.(짜증이 난다)
- Kau bisa cepat tua kalau mudah kesal dengan hal-hal sepele.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면 빨리 늙는다.



영화 <수까르노>로 본 인도네시아 독립

글: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누군가의 삶을 소개로 하는 영화는 관객 입장에서 실망하기 쉽다. 필요 이상의 주관이 개입되고 여기에 극으로서의 재미와 완성도 등을 고려하다 보면 역사적 사실과 다른 가공의 이야기 즉 픽션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장에서 낯선 인도네시아 역사 특히 독립시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필자는 새해 첫날 오후 자카르타의 한 극장에서 영화 <수까르노: 인도네시아 독립>(Soekarno: Indonesia Merdeka)을 관람했다. 수까르노는 인도네시아 독립지도자이자 초대 대통령이라는 영웅의 이미지와 더불어 여러 명의 부인을 둔 여성편력, 공산쿠데타에 이은 실각 등으로 실패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다.

영화 수까르노는 러닝타임 총 137분이며, 하눔 브라만띠오 감독, 벤 시홍빙 대본, 라암 뿐자비이 프로듀서 등 참여했고, 아리오 바유가 수까르노 역을 맡았고, 제작사는 MVP 픽처스다.

영화 줄거리

이 영화는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일본 식민통치시기에 독립투쟁을 벌이던 1927년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1945년까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년 수까르노는 이슬람상인연합(SDI)을 결성하고 민중운동을 이끈 민족주의 지도자인 쟈끄로아미노또의 집에서 사숙하면서 1916년 네덜란드식 중등학교에서 공부한다. 이곳에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다윈주의, 이슬람 사상에 영향을 받



는다. 수까르노는 네덜란드 소녀 미엔과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의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다.

수까르노는 1927년 인도네시아국민당(PNI)을 설립하고 정치활동을 시작하지만, 1929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체포되어 두 번째 부인인 잉깃과 동부누사똥가라주(州) 엔데 지역으로 유배를 갔다가 수마트라섬의 병끌루로 유배지를 옮긴다. 그는 병끌루에서 이슬람단체 무함마디아 계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15세 소녀 파트마와띠와 사랑에 빠진다.

1942년 일본 군대가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침략해 쉽게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든다. 일본 정부는 수까르노를 유배에서 풀어주고, 모하맛 하따와 수판 샤흐리르 등 민족지도자들을 자카르타로 불러들여 일본 식민정부에 협력하라고 위협한다. 하따는 일본에 협력하자는 수까르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샤흐리르는 거부한다.

수까르노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일본군에 식량과 광물을 제공하고, 군대와 노역에 자원하라고 설득하는 등 일본군에 협력한 대가로 자신의 민족주의 사상을 대중에게 알릴 기회를 얻는다. 일본군

이 인도네시아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자, ‘일본군이 내 딸을 잡아가요. 그들이 내 딸에게 매춘을 시켜요’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수까르노의 설득에 잠잠해지는 장면도 있다. 이에 일부 인도네시아인들은 그의 집에 ‘기회주의자, 겁쟁이, 살인자’ 라고 쓴 종이를 돌에 묶어 던진다. 일본군은 이슬람신자들에게 일왕에 대한 절을 강요했다가 반발하자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쏜다.

한편 수까르노는 잉깃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도 파트마와띠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그녀와 결혼하는 꿈을 꾸다. 결국 잉깃은 일부다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까르노와 이혼하고, 수까르노는 파트마와띠와 세 번째 결혼을 한다.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수까르노와 하따는 히로이토 일왕에게 인도네시아 독립을 약속 받는다. 이후 일본이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필리핀을 미국에 빼앗기는 등 전세가 기울자,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독립준비위원회(BPUPKI)를 설립하도록 허락한다.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자, 정치단체들이 수까르노에게 독립선언을 촉구하지만 그는 혼란을 우려해 거절한다. 그리고 이틀 뒤인 17일 일본의 후원 아래 간소하게 독립선언을 한다.

실제 역사는

영화 속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역사책<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매리 하이듀즈>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먼저 일본인들은 수까르노와 하따를 끌어들이고 국민들에게 노동력과 물자 동원을 촉구하게 함으로써 전쟁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일본은 젊은이들을 강제로 노동부대에 입대시켰는데,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약 3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이들 중 절반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강제노동자와 중군위안부를 뜻하는 단어인 ‘로무샤(romusha)’와 주군이안푸(Jugun Ianfu 또는 budak seks)는 일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일본인들은 초기에는 이슬람에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유명한 이슬람 지도자가 “무슬림은 일왕에게 절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한 후 일본 식민정부는 무슬림을 탄압한다.

일본은 필리핀과 미얀마에는 독립을 부여했지만 천연자원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을 암시하는 말조차 조심스러워했다. 1945년 초 일본군의 패배가 눈앞에 가시화되자 일본은 수까르노와 하따를 베트남 사이공에 있던 일본군 사령부로 불러 일본이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독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영웅보다는 인간으로 묘사된 수까르노

인도네시아인들은 수까르노가 많은 결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가 본 영화 속 수까르노는 의구심이 많은 인간적인 지도자였다. 하눔 브라만띠오 영화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까르노의 삶 속에서 내적 투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 엔디 바유니 자카르타포스트 편집장은 ‘수까르노를 폄하하는 영화’라는 제목의 칼럼(자카르타포스트, 2013년 12월 29일)에서 수까르노처럼 위대하고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인물을 2시간 조금 넘는 영화에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줄리아의 지하드’의 저자이며 칼럼니스트인 줄리아 수르야꾸스마는 ‘수까르노 전기영화의 관전포인트: 논쟁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자카르타포스트, 2014년 1월 8일)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7명 중 가장 화려하고 카리스마틱한 인물이 수까르노인데, 2개월 정도의 준비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 졸속영화가 됐다고 비판했다.

줄리아는 영화 수까르노가 기본적으로 초대 대통령을 바람둥이, 일본 협력자 심지어 아첨꾼이라고 묘사하고, 인도네시아 독립은 일본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바유니는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수까르노가 유부남임에도 여학생과 연애를 할 정도로 여색을 좋아하고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약속하는 일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일본에게 협력할 정도로 어리석으며 △수까르노, 하따, 샤흐리르가 독립 투쟁 전략을 위해 지적인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한 장면에서는 수까르노가 다른 두 사람보다 지적으로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바유니는 수까르노가 1920년대와 30년대에 쓴 칼럼을 읽어보면 당시 어떤 인도네시아 젊은이보다 그의 지적인 수준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까르노는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구속됐을 때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만큼 연설을 잘했고, 독립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한 뺨짜실라(Pacasila)를 골자로 한 연설은 지금도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고의 연설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수까르노의 가족과 이슬람단체들은 영화가 실제

와 다르다며 개봉 전부터 항의하고 영화 수까르노의 상영을 저지하겠다고 협박했다. 수까르노의 2녀이자 수까르노교육재단(Yayasan Pendidikan Soekarno) 이사장인 라흐마와띠는 영화 대본이 자신들이 합의했던 것과 다르고, 수까르노 역을 맡은 배우 아리오 바유도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영화 제작회사 MVP 픽처스, 하눔브라만띠오 감독 등과 소송을 벌였다. 무함마디아와 이슬람수호전선(FPI) 같은 이슬람 단체들은 영화 속에서 독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이슬람 대표들이 샤리아법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장면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논쟁을 시작합니다

영화 <수까르노>는 시작부터 혼란을 준다. 영화 시작 전 관객들에게 모두 일어서서 국가를 부르라고 하고, 영화 장면 속에 과거 영상기록을 수시로 삽입해 다큐멘터리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실제 사건과 인물로부터 모티브를 가져왔으나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묻게 된다.

줄리아는 수하르또 신질서 정부가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초대 대통령의 존재감을 축소하기 위해 만든 탈수까르노화가 이 영화에 반영됐다는 느낌도 들었지만, 이 영화가 정말 수까르노를 폄하하기 위해 만든 영화일까?라고 반문했다. 오히려 그는 영화 <수까르노>가 개념의 혼란과 가짜 민족주의가 혼합되면서 메시지가 뒤섞였으며, ‘수까르노 장사!’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상업영화일 뿐인 <수까르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줄리아는 “역사는 끝없는 논쟁”이라는 네덜란드 역사가 피터 기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실존 인물 수까르노를 스크린에 소환해 그에 대한 논쟁을 시작하게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줄리아는 “권력이 전파하는 역사적 신화에 대해 반하는 우리 자신의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줄리아는 수하르또 전 대통령이 32년 간 통치하면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방적인 역사관을 주입했다며, 당장은 어려운 일이지만 1998년 이후에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수하르또의 역사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회 무료 법률 상담 안내

1. 상담자 :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 파산관리사

HP : 0816 1911 245

Tel : (021) 5296 0643

E-Mail : yisngmin@centrin.net.id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리아센터 202호

KOREA CENTER BUILDING LT.2

Jl. Jend.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2. 상담자 : 이 소 왕 변호사

HP : 0816 846 631

Tel : (021) 520 7153

E-Mail : doowang@cbn.net.id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

장소 :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1701호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3. 상담자 : 김 민 수 변호사

HP : 0816 794 257

Tel : (021) 797 6254

E-Mail : ms@paklawfirm.com

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4시

장소 : 코린도 사무실 5층

WISMA KORINDO LT. 5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상담 에티켓>

상담업무의 효율 증진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변호사에게 사전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뉴 노멀

피터 힌센 저/이영진 역 | 흐름출판



디지털 시대의 시작에서 정점에 이르는 첫 번째 여정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지점에 와 있다. 이 중간 지점부터 끝에 이르는 두 번째 여정이 바로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은 ‘새로운 표준화’로 풀이할 수 있는데, 세상이 디

지탈화되어 마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듯이 디지털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된 시대를 말한다. IT 분야의 미래학자인 피터 힌센은, 기업이 디지털 시대 제2막의 변화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경영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한 추세 위주로 다루거나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예측으로 일관된 다른 책과는 달리 이 책은 실제 기업과 제품 사례, 참고문헌에 근거한 인용과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생생한 예시들을 풍부하게 담았다.

유쾌한 크리에이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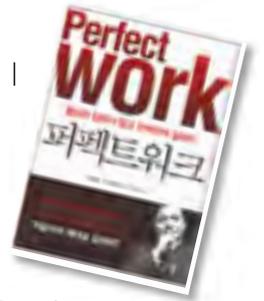
톰 켈리, 데이비드 켈리 공저/박종성 역 | 청림출판



창조성과 혁신의 대가인 저자들은 IDEO와 스탠퍼드 d스쿨에서 경험한 혁신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타고난 창조적 잠재력을 발현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에 관한 궁극적 해답을 보여준다. 애플 최초 마우스와 세계 최초 노트북 컴퓨터를 디자인한 세계적 디자인 기업 IDEO를 이끄는 켈리 형제는, 현장에 나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가진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발견하거나, 이른바 ‘버그리스트’(buglist)를 작성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체크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일 등의 영감을 불러넣는 간단한 도구도 소개한다.

퍼펙트워크 Perfect Work

왕중추, 주신위에 공저/이지은 역 | 다산북스



중국 1000만 독자를 열광케 한 《디테일의 힘》으로 세계 최고의 ‘성과경영 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왕중추가 이번에는 ‘완벽’에 이르는 업무 혁신법, ‘퍼펙트워크’에 대해 설파한다. ‘퍼펙트워크’란 자신의 일을 대하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점검하는 과정이고, 사소한 부분도 소홀히 넘기지 않고 제대로 해내고자 하는 일처리 방식이며, 100퍼센트의 열정과 노력으로 결점 없이 성과를 내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문제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

강문식, 김범, 문중양, 박진호, 송지원, 염정섭, 오상학, 장지연 공저/문사철 편 | 민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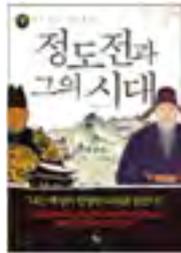


‘각 시대별 주인공을 중심으로 역사를 깊이 있게 서술하게 된 것은 물론, 독자 입장에서 한국사의 큰 흐름을 굽직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당대의 다른 문명권과 한국사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이 대항해시대로 시작해 《표해록》의 여정으로 끝나는 것이나, 《16세기, 성리학 유포피아》가 양명학과 프로테스탄티즘을 ‘주관주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각 시대를 이후 시대의 원인이나 이전 시대의 결과로 환원해버리는 대신, 각 시대의 현실 그대로를 복원하는 생생한 서술이 ‘민음 한국사’의 두 번째 특징이다.

정도전과 그의 시대

이덕일 저 | 옥당

고려 말·조선 초의 역사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깨어난다!



한국사의 쟁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서술 방식으로 역사서 서술의 새장을 연 역사학자 이덕일의 첫 번째 강연집이다. 정도전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혼란스러운 고려 말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선을 설계했으나 큰 뜻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이방원의 칼날에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혁명가라는 이미지다. 하지만 조선의 설계자라는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그의 삶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정도전은 고려 말의 혼란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을 토지제도로 보았고, 그 폐해를 없애는 것을 새 왕조 개창의 명분으로 삼았다. 과전법은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책과 지식의 역사

강명관 저 | 천년의상상

조선의 책과 지식은 조선사회와 어떻게 만나고 헤어졌을까?



저자 강명관은 커다란 실험을 시작한다.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사회문화적 전개과정을 탐사하려는 작업이 그것이다. 책과 관련된 연구는 문헌학 또는 서지학, 인쇄기술학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왔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야에서는 책이 담은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 반면 책에 쓰인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는 무한하다. 문학, 역사, 철학 등으로 얼마든지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또한 책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조선의 책과 지식을 생산-유통-소비라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응답하라 1994

오승희 저/이우정 극본 | 21세기북스



tvN [응답하라 1994] 소설로 탄생 명대사, 주인공들의 섬세한 감정을 다시 한번

소설로 만나는 <응답하라 1994>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물론, 추억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90년대 배경과 아이템, 보는 내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에피소드를 섬세한 감각으로 지면에 담아냈다. 특히 주옥같은 명대사와 명장면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눈빛과 표정으로 주고 받았던 애뜻함을 디테일한 감정 묘사로 완벽하게 재연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나정의 남편 찾기'에 국한되지 않고, 끝끝내 이루어져야만 했던 첫사랑에 당위성을 제공한다. 짜임새 있게 배치된 조연들의 활약은 소설 속에서도 계속된다.

남자의 밥상

방기호 저 | 위즈덤하우스

40대의 원기를 30대로 되돌리는 밥상 혁명이 시작된다!



대표적인 예로 발기의 시작과 지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는 오직 식품 섭취와 운동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20대 중반에 머리카락의 절반을 잃고 자가면역질환인 크론씨병 진단을 받았던 저자는, 약물 투약을 거부하고 식이치료를 시작하면서 풍성한 모발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중년 남성의 성인병, 암, 발기부전의 원인은 잘못 먹어 온 음식에 있다. 책의 저자는 마흔의 남성이 선택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 '밥상을 바꾸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 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4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임원명부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1	명예회장	승은호	KORINDO GROUP	30	자문위원	박동희	TRIKARYA ALAM
2	명예고문	김재유	HENKEL DONGSUNG	31	자문위원	박현식	DONGAN KREASI INDONESIA
3	회장	신기엽	HANINDO EXPRESS UTAMA	32	자문위원	석웅치	DAYUP INDONESIA
4	수석 부회장	조규철	DONG JUNG	33	자문위원	송재선	PUTRA HANKUK
5	수석 부회장	배도운	DOOSAN CIPTA BUSANA JAYA	34	자문위원	양영연	BOSUNG INDONESIA
6	부회장	강희중	SUNG TECHNOLOGY	35	자문위원	엄석준	NEW-WORLD MEDICAL
7	부회장	김영옥	GAYA INDAH KHARISMA	36	자문위원	오세윤	
8	부회장	김주철	STAR CAMTEX	37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9	부회장	김준규	CIPTA ORION METAL	38	자문위원	이진호	JIN YOUNG
10	부회장	김희년	ETRAIDING SECURITIES ASIA TOP INVESTMENT LTD.	39	자문위원	이현상	ROYAL KORINDAH
11	부회장	박미례	여성회	40	자문위원	장주현	INKO PRIMA UTAMA JAYA
12	부회장	박재한	BUSANA PRIMA GLOBAL	41	자문위원	정무웅	코린도 장학재단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단
13	부회장	배응식	KYUNGSEUNG TRADING INDONESIA	42	자문위원	조용준	TIGA BINTANG JAYA
14	부회장	엄정호	ING INTERNATIONAL	43	자문위원	최정남	GLOBAL FIBER INDO
15	부회장	이지현	ZIMMOAH MARINE TRANS	44	자문위원	하연수	SEOLIN
16	부회장	이진수	SUNG BO JAYA	45	자문위원	현상범	INAMEN JAYA
17	부회장	이호덕	ROYAL SUMATRA VICTOR JAYA RAYA	46	이사	강주석	SERIM INDONESIA
18	부회장	조용우	외환은행	47	이사	강호성	ANUGRAH CIPTA MOULD SHOP
19	부회장	최광수	BIG STAR	48	이사	구자성	일요신문
20	부회장	최상학	우리은행	49	이사	김경곤	SUKWANG INDONESIA
21	부회장	황의상	INWHA INDONESIA	50	이사	김경국	N E S
22	자문위원	배상경	TEBO AGUNG INTERNATIONAL	51	이사	김광현	ASOKA
23	자문위원	강덕재	LEMBUSWANA PERKASA	52	이사	김달수	KIDECO JAYA AGUNG
24	자문위원	김문환	KASINDO GLOBAL UTAMA	53	이사	김도상	HONGIK INDONESIA
25	자문위원	김병철	MISUNG INDONESIA	54	이사	김문호	DADA INDONESIA
26	자문위원	김석래	INACON LUHUR PERTIWI	55	이사	김상태	SMS GROUP
27	자문위원	김영만	KOREA INDONESIA PETROLEUM CO.,LTD	56	이사	김성국	TRISTAN RESOURCES
28	자문위원	김영주	DEWA CITRA SEJATI	57	이사	김세형	BTEXB INDONESIA
29	자문위원	김우재	KOIN BUMI	58	이사	김수용	NOBLE INDONESIA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59	이사	김영도	QUTY KARUNIA
60	이사	김원관	GF INDONESIA
61	이사	김육찬	INDODEV NIAGA INTERNET
62	이사	김일현	LOCK & LOCK INDONESIA
63	이사	김종성	BONGMAN INTERNATIONAL
64	이사	김종헌	KOIN BUMI
65	이사	김종희	YOUNGJIN INDONESIA
66	이사	김철회	BK GLOBAL LESTARI
67	이사	김희익	EPS INDONESIA
68	이사	김헌재	TOUR 153
69	이사	노승원	SGWICUS INDONESIA
70	이사	노예범	SAM PUTRA INTI
71	이사	박성대	HANJIN INDONESIA
72	이사	박영수	BENUA ASIA VISION
73	이사	박철우	ASIANA AIRLINES
74	이사	박훈규	BUMI TOUR
75	이사	배정옥	AGRI TRADING INVESTMENT
76	이사	서영률	PRATAMA ABADI INDUSTRI
77	이사	서준형	TACHYON INDO
78	이사	송병권	HYUNDAI CORPORATION
79	이사	송판원	KORYE POLIMER
80	이사	승범수	KORINDO GROUP
81	이사	신규태	INDO SUNGIL JAYA
82	이사	신만기	PARKLAND INDONESIA
83	이사	신유희	BINTANG 2 MACHINE JAYA
84	이사	안상영	DAEHWA LEATHER LESTARI
85	이사	안선근	U.I.N UNIVERSITY
86	이사	안홍제	KOLON INA
87	이사	양승진	DOSON INDONESIA
88	이사	양시완	KISWIRE BALARAJA INDONESIA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89	이사	양태화	BOSUNG INDONESIA
90	이사	오세명	SUNG LIM CHEMICAL
91	이사	유주완	FEEL BUY INDONESIA
92	이사	윤석환	SUNG SHIN INDONESIA
93	이사	이상일	U I B
94	이사	이석태	U F U
95	이사	이소왕	L S W
96	이사	이옥찬	KORINA SEMARANG
97	이사	이윤상	PAKUWON GROUP
98	이사	이종억	K A L
99	이사	이종현	LEO KORINSIA
100	이사	이주한	MEDISON JAYA RAYA
101	이사	이준하	DAELIM INDONESIA
102	이사	이지완	JIN YOUNG
103	이사	이철훈	INDO BOX UTAMA JAYA
104	이사	임성용	MIRINA NUSANTARA
105	이사	임성필	LSP INDONESIA
106	이사	전민식	POWERTECH INDONESIA
107	이사	정용완	HUNG-A INDONESIA
108	이사	정주성	DEASUNG HI-TECH
109	이사	정철주	DONG-IL INDONESIA
110	이사	조호신	SONERGY
111	이사	지동주	INTEC MAS ENGINEERING
112	이사	차상만	HANKOOK CERAMIC INDONESIA
113	이사	하치호	RUBBER TECH
114	이사	현정규	MEKAR SAMMI JAYA
115	이사	홍기호	AURORA INT'L CO.
116	이사	홍종서	DONGEN CHEMICAL
117	이사	황윤홍	자카르타경제일보사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외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 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배상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외환은행 KEBI	하나은행 BANK HANA
계좌번호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 200 5949	RP A/C NO: 001 00 11 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안인외사무국 안국직원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 한인회사무국
모집인원 : 1명 (인도네시아 국적자 우대)
자격요건 : 남자20대-30대
컴퓨터 능숙자 (홈페이지관리)
인니어, 영어가능자

문의처 :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전 화 : (021) 521 2515
E-Mail : yasko@indosat.net.id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브까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뎀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0291 598593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헤리티지인터내셔널스쿨	08129712306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플라빠가딩)	723 0807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샌즈몬테소리스쿨	720 6629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찌까랑 공소)	7884 3782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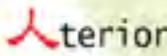

MATAARI
TRAVEL & TOURS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ijay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ijay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룸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크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JAKARTA BIZ DAILY
 Patra Jasa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 INDONESIA
 Tel : +62-21 5290-0117 (Hunting) | Fax : +62-21 5290-0229
 E-mail : news@jbizdaily.com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어 경제일간지
자카르타경제일보
 구독문의 (021) 5290 0118

www.doowang.com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물어옵니다.
 보려는 나라 세상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만문 만물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줄 것 다해 알아볼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거-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stn.net.id, doowang1@gmail.com

Salon & Beauty Shop 272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

안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Sudirman)	9127 2262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뽕독인다)	315 1033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쁘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쁘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안하우스(반등)	(022) 203 1626
코리아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쁘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뎀)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뱅크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보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집

고향집 하숙	83701492/081511597510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143437
쉴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21 2592 7000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22 0686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쁘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ld

KORINDO Pl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두 번 사랑했. **KIDECO**
우리의 열정과 투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말레이시아 Pasa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한을 하사로 공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